

국립국어원 2008-01-16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007-01



건국 60주년 기념 국어 사랑 큰 잔치 행사 결과 보고서

건국 60주년 기념 국어 사랑 큰 잔치 행사 결과 보고서

발행인 이상규 | 편집 김선철 | 발행처 국립국어원 ☎ 157-857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길 148 (방화3동 827) | 전 화 (02) 2669-9775
전 송 (02) 2669-9777 | 인쇄일 2008년 10월 27일 | 발행일 2008년 10월 31일 | 인쇄 크리홍보(주)

건국 60주년 기념

국어사랑 큰잔치 행사 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건국 60주년 기념

국어사랑 큰잔치 행사 결과 보고서

삶의 국어, 창조의 국어, 나눔의 국어
국어로 세상을 품다

행사 개요 _ 17

개요 / 주요 일정 / 세부 일정

격려사, 축사 _ 2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국립국어원 원장 이상규

한글학회 회장 김승곤

전 국어심의회 위원장 김수업

국민대 명예교수 송 민

국어학회장 성환갑

국어 사랑 선언문 _ 35

작성 경위

선언문

분임 토론 _ 41

제안나무 _ 75

참가기 _ 91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중학교 교사 이재인

서울신문 기자 이경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석사과정 탁진영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책임연구원 김태훈

뒤돌아 보며 _ 107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 회장 남영신

전국국어교사모임 사무총장 안용순

감사의 글 _ 112

관련 기사 _ 115

보도 자료

언론 보도

참가자 명단 _ 123















저호배이셔도

행사 개요

개요

- 행사명 : 건국 60주년 기념 '국어 사랑 큰 잔치'
- 주제 : 국어로 세상을 품다
- 구호 : 삶의 국어, 창조의 국어, 나눔의 국어
- 행사 목표 : 한국어를 둘러싼 대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어 정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함.
- 행사 기간/장소 : 2008. 8. 22.(금) ~ 8. 23.(토) / 그랜드힐튼 호텔(서울)
- 행사 규모 : 참가 인원 약 500명
(행사 관계자 및 초대 손님 70여 명, 일반 참가자 432명)
- 주요 행사 내용
 - 초청 강연 : 권영민(서울대)
 - 분임 토론 및 종합 토론 : 민족 문화와 국어, 세계 속의 한국어, 문화 창조의 동력 국어(3개 주제 4개 분과)
 - 환영 만찬 및 공연 : 다스름, 남상일 등 공연
 - 어울림 마당 : 국어 사랑을 주제로 도미노 쌓기
 - 국어 사랑 선포식 : 행사 참가자들의 의견을 담은 국어 선언문 선포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주관 : 국립국어원
- 기획 : 최용기, 정호성, 최혜원, 정희창, 김덕호, 강미영, 박정진
- 진행 :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위너스커뮤니케이션즈
- 홍보 : 그레이프피알앤컨설팅
- 참가 기관 : 교열기자협회, 전국국어교사모임 등
- 후원 :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겨레말 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국어교육학회, 국어학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우리말로 학문하기, 이중언어학회, 한국소설가협회, 한국시인협회,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 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문교육연구회, 한국어문화, 한글문화연대, 한글학회



주요 일정

첫·째·날(8. 22.)

구 분	시 간	장 소	내 용
개 막 식	13:00 ~ 13:30	그랜드볼룸	환영사 및 개회 선언
초청 강연	13:30 ~ 14:30	그랜드볼룸	'한국어 현실과 새로운 전망'을 주제로 한 초청 강연 (강사: 권영민 서울대교수)
분임 토론	14:30 ~ 17:30	다이아몬드홀	참가자가 12~15명씩 분임을 이루어 토의 ※토의 주제: '민족 문화와 국어' '세계 속의 한국어' '문화 창조의 동력-국어'
종합 토론	17:30 ~ 18:20	그랜드볼룸	각 분임 토론 결과에 대한 발표
환영 만찬	18:20 ~ 20:30	컨벤션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구성의 환영 행사

둘·째·날(8. 23.)

구 분	시 간	장 소	내 용
어울림 마당	09:00 ~ 11:30	컨벤션홀	참가자들의 단합과 국어 문화 창달을 다짐하기 위한 도미노 구성
선언문 선포식	11:40 ~ 12:30	그랜드볼룸	새로운 국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국어인의 선언 ※국어 사랑 선언문 발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개막식	11:00 ~ 13:00	참가자 등록, 행사장 입장	
	13:00 ~ 13:10	대회 일정 및 내빈 소개	사회자(최용기 국어진흥교육부장)
	13:10 ~ 13:15	개막 선언	국립국어원장
	13:15 ~ 13:20	인사말	국립국어원장
	13:20 ~ 13:25	축사	김승곤(한글학회 회장) 김수업(전 국어심의회 위원장)
초 강 연	13:25 ~ 13:30	행사 안내	사회자
	13:30 ~ 13:35	초청 강사 소개	사회자
	13:35 ~ 14:20	강연	초청 강사(권영민 서울대 교수)
	14:20 ~ 14:30	휴식	
분 임 토 의	14:30 ~ 14:35	발제자 소개	사회자(국어원 팀장 4인)
	14:35 ~ 14:55	발제	각 분과 발제자
	14:55 ~ 17:00	분임 토론	참가자 전원(1분임 12~15명)
	17:00 ~ 17:30	각 분임 토론 정리	에메랄드홀, 컨벤션홀
중 합 토 론	17:30 ~ 17:40	종합 토론장 입장	그랜드볼룸
	17:40 ~ 18:00	각 분임 토론 결과 발표	사회자(정재환), 분과 대표
	18:00 ~ 18:20	분과별 발표에 대한 발제자 의견 교환	발제자
환 영 만찬	18:20 ~ 18:35	행사장 입장	컨벤션센터 4층
	18:35 ~ 18:45	공연	다스름과 전통 무용
	18:45 ~ 18:50	내빈 축사	송 민(전 국립국어원장) 성한갑(국어학회 회장)
	18:50 ~ 19:00	건배 제의	강봉석(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19:00 ~ 19:40	만찬	
	19:40 ~ 19:50	축하공연	남상일
	19:50 ~ 20:00	참가자의 행사 참가 소감 청취	참가자
	20:00 ~ 20:10	축하공연	북밴
	20:10 ~ 20:15	마무리 인사	국립국어원장
	20:20 ~ 20:30	공연	나비야, 비보이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도미노 쌓 기	~ 09:00	행사장 집결	사회자(전종환 아나운서)
	09:00 ~ 09:30	구역 편성 및 브리핑	도미노 담당자
	09:30 ~ 11:10	각 구역별 도미노 작업	참가자
	11:10 ~ 11:20	도미노 무너뜨리기	장관, 참가자 대표(이슬베)
	11:20 ~ 11:30	기념 촬영	참가자
장관과 대 화	11:25 ~ 11:40	장관과 내빈 면담	장관, 송민 외 17명 내빈 참석
	11:40 ~ 11:50	사회자 인사, 내빈 입장	진행 : 전종환 아나운서
	11:50 ~ 12:00	전통 국악 공연	다스름
선포식	12:00 ~ 12:10	국어사랑 선언문 선포	참가자 대표(이영발 문영여고 교사, 정연주 교통방송 아나운서)
	12:10 ~ 12:20	장관 격려사	선언문 선포에 대한 답사
	12:20 ~ 12:40	폐회 선언	폐회 선언 후 장관과 기념 촬영



격려사 · 축사

격려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인사말

국립국어원 원장 이상규

축사

한글학회 회장 김승곤

전 국어심의회 위원장 김수업

국민대 명예교수 송민

국어학회장 성환갑



꼭려사

국어 사랑 선포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격려사

국어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모이셔서 많은 말씀도 나누시고, 또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쏟아 내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시간쯤은 조금 피곤하지 않으실까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름을 다시 한 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국립국어원장 송민 선생님, 심재기 선생님, 남기심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글학회 김승곤 회장님, 전임 국어심의회 위원장이신 김수업 선생님,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이상보 회장님, 한국시인협회 오택번 회장님,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박종국 회장님, 정병규 출판디자인 대표이신 정병규 선생님, 한글문화연대 고경희 대표님, 전국국어교사모임 이사장이신 장재화 선생님, 모두 고맙습니다. 그 외 여기 선생님들 다 계신데 저한테 적어준 성함이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소개를 못 드리더라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국어사랑큰잔치에 참여해 주신 우리 국어 가족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저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늘 우리는 말과 글을 가까이 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한테 자기도 모르게 늘 상처를 주고 뜻도 없이 고통을 주는 것처럼,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그렇지 않음에도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여 온 언행은 우리 말과 글을 좀더 소중히 하지 못하고 늘 있기 때문에 거의 방치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정책이 과연 뭔가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책을 해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하면 그것이



정책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너무 크고 넓은 데 반해, 요즘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 경제적인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두면서, 자극적이고 복제적인 영상문화가 판치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순수성과 깊이와 넓이에 대한 것에는 대단히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우리의 문화정책은 그 순수함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애초의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틈틈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그것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고 속도가 느리더라도, 우리 문화와 예술이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의미로써 문화와 예술이 도구화되지 않고, 그것 자체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해 갈 수 있는 그러한 문화정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정책입니다. 그 한 가운데에 바로 우리의 말과 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부터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말과 글에 관련된 많은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신 것도 오랜만이지요? 처음입니까? 죄송합니다. 더 일찍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했는데, 제가 장관이라는 거대한 직함을 맡은 지 28일이면 딱 6개월이 됩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서둘러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3월에 국립국어원 원장님하고 의논을 하면서 우리 말과 글에 대한 확실한 모습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의기투합하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계획해서 이

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언문에서 조금 안심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다 못해 너무 집착을 하면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선언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말과 글과 함께 우리글이 같이 동참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려나가 보자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우리 것만 너무 생각하지 않고 세계를 품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31개 나라, 100여 곳에서 20여 만 명의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를 만큼 우리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아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어로서의 우리말 높이기 정책과 함께 세계 속의 언어로서의 한국어 키우기 또는 문화 창작의 밑거름으로서의 한글 드높이기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우리 말과 글을 갖고두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글의 과학성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우리글이 얼마나 과학적인가에 대해서 체감을 못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글이 얼마나 과학적인가를 얘기하고 싶고, 세계의 많은 사람이 우리말을 배우게 하고 싶고, 또 우리 말과 글이 산업화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경제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한글의 과학화, 세계화, 산업화 등의 목표를 갖고 앞으로 추구하고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신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순수한 것, 가장 기초적인 것, 이것이 저희들의 정책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자부심 자존심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분야에 정말 많은 소중한 것들을 드러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자



존심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생님들 몇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말과 글이 갖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금부터라도 다 담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60여 년 방치해 온 우리말에 대한 보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예술 작품으로 승화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말이 교육되고 세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정부가 힘이 있든 없든 너무 나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민단체, 학회 또는 한글에 관계된 많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고,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저희들이 잘 뒷바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모임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맘 때 작년의 시작이 얼마만큼 발전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여 여러분이 느낄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손을 맞잡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이상규 국립국어원 원장 개회식 인사말

국어 사랑 큰 잔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학계, 교사, 국어 관련 단체, 언론계, 출판계, 문화 산업계 등을 대표하는 국어 관계자분들을 모시게 되어 반갑습니다. 변화하는 국어 환경 속에 우리 말과 글의 앞길을 열어갈 논의를 할 수 있는 뜻깊은 건국 60주년 기념 행사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을 비롯하여 모든 참석자들에게 본 행사 주관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최근 국제 관계가 다변화하면서 국어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국어와 언어 연구가 체계적으로 매우 정밀하게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제 지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언어 정보 환경에 걸맞은 언어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 국어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언어의 공통성과 다원성이라는 주제로 지난 8월 세계언어학자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경제 기반이 열악한 세계의 언어는 곳곳에서 죽어가는 신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배적 언어 중심의 언어 정책이 가져온 엄청난 인류 언어 자산의 소멸을 눈앞에 두고 변두리의 언어 보존을 위한 우리들 관심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다문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언어와 언어의 혼류 문제, 언어의 지배 문제 등 산적해 있는 언어 정책의 미래를 설계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새로운 맑은 물길을 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를 창조하여 이를 사용하는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이러한 저력이 금세기에 들어서면서 정보화의 기술력과 접목되면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 기획과 연출 생산 부문에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자신감을 토대로 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세계로 뻗어가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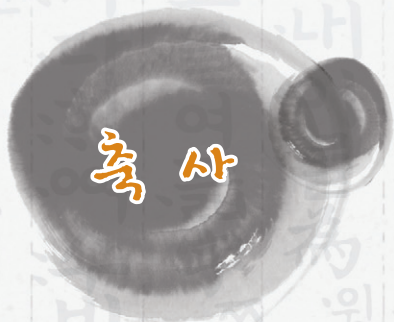


국어 환경을 만들어 갑시다. 또한 국가 발전 동력으로서 생명력 있는 국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어 자산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기계화하고 또 산업화함으로써 실용적 가치를 구현하는 데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민족문화와 국어, 세계 속의 한국어, 문화 창조의 동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와 다양한 토론에서 국어 앞날의 환한 물길을 열어 선언문에 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 깊고 넓은 여러분의 의지가 국어 문화 정책의 길잡이로, 온 국민을 환하게 밝히는 꺼지지 않는 촛불로 점화될 것을 확신합니다. 누구보다 애뜻하게 국어를 사랑하는 유인촌 장관님께 뜨거운 환호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국어의 미래를 설계하는 멋진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행사가 있기까지 일일이 챙겨주신 문화체육관광부 강봉석 문화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국립국어원의 모든 식구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인사를 드립니다. 국어학계 원로분들, 국어 단체 대표자, 언론계, 출판계, 문화 산업계 대표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의전상 결례가 없도록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으리라 봅니다. 오늘 국어 사랑 선언문에 담길 큰 뜻을 생각하여 부족한 부분은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1박 2일 동안 우리는 새로운 국어 발전의 역사를 쓰는 데 한 배를 타고 갑니다. 행복하고 소중한 일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08년 8월 22일
국립국어원 원장 이상규



김승곤 한글학회 회장 개회식 축사

우선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국어 사랑 큰 잔치'라는 뜻 깊은 행사가 이루어진 데 대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과거 국어는 이 땅에 더불어 사는 이들이 공유하면서 고귀한 문화 가치를 실현하게 했던 바탕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의 문화와 지식을 새롭게 일구고 발전시키는 소중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작품에서 아멜 선생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프랑스 말은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며 굳센 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비록 국민이 노예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국어만 유지하고 있다면 자기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국어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우리의 혼(정신)을 지키는 일과도 같습니다. 우리 국어에는 우리 겨레의 열이 담겨 있고, 이를 가꾸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열을 지키는 중요한 문지기(파수꾼)들입니다.

건국 60년 이래 이번과 같은 특별한 행사는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국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국어를 지키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일은 아마도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행사를 계기로 우리는 더욱 국어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것입니다.

국어는 우리의 열과 꿈을 더욱 더 풍요롭게 하는 쟁기입니다. 온 누리에 씨를 뿌리고 쟁기에 녹이 슬지 않도록 갈고 닦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농부의 마음으로 국어를 지키는 좋은 의견을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진행되는 이번 행사가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다시 한번 국어를 사랑하는 뜻을 가슴에 한 가득 품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런 자리를 기획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사를 추진한 국립국어원에 대해 국어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무쪼록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거행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8년 8월 22일
한글학회 회장 김승곤



김수업 전 국어심의회 위원장 개회식 축사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니 가슴이 뿌듯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는 우리말을 사랑하며 지키려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자리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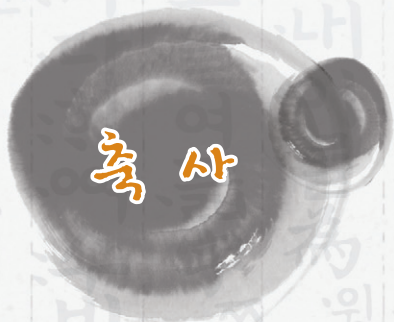
대한민국이 건국을 하여 이제 60년입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한글을 제대로 쓰기 시작한 것도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그런 시간으로 처음 마련하여 아주 뜻이 깊은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말의 지난날과 앞날을 함께 짚어보고 걱정하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그 사이 온 나라 곳곳에서 남달리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해 오신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함께 뜻을 모아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는 주춧돌과 기둥이 되고 지붕과 벽이 되어 우리 삶의 보금자리를 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과 이 행사를 준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처음으로 열리는 이 행사가 우리 국어의 앞날을 환히 밝혀나가는 좋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08년 8월 22일
전 국어심의회 위원장 김수업



송민전 국립국어원 원장 만찬 축사

‘국어 사랑 큰 잔치’에 참여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력은 아직도 여름을 가리키고 있지만 입추가 지나면서 저녁 공기는 문득 훈훈한 가을의 입김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오늘 저녁, 우리말과 우리글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알게 모르게 애쓰고 계신 전국의 국어 가족 여러분을 모시고, 한 자리에서 저녁을 나누게 되었으니 진심으로 통쾌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삶의 국어’, ‘나눔의 국어’, ‘창조의 국어’라는 세 가지 큰 주제를 내건 가운데, 우리말의 가치와 미래에 대한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실로, 감격스럽고도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열성과 애정으로 토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참에는 국어사랑 실천을 위하여 고귀한 의견을 들려주신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말과 우리글의 미래,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밝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국어에 대한 사랑과 의지가 내일 있을 선언문 선포식을 통하여 온 누리에 골고루 스며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귀한 마음이 이후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매일매일 지속되고 실현된다면,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보람찬 본보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뜨거웠던 토론의 열기를 잠시 접어 두고 모두가 한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못다 한 이야기도 나누시고, 음식도 즐기시며 편안한 마음으로 무더위를 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번 잔치를 마련하느라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 특히 국립국어원의 이상규 원장님을 비롯한 행사관련 기획팀과 실무팀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국민대 명예교수 송민



성환갑 국어학회장 만찬 축사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국어 사랑 큰 잔치’를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준비와 진행에 오래 수고하신 국립국어원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이享有하는 재산에는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의 양면이 있는데, 이 중에 물질문명은 파괴되더라도 경제적 손실만 감수하면 복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문화는 한번 어지러워지면 영원히 재건도 세탁도 불가능한 것이지요. 이처럼 소중한 길러가야 할 민족문화의 根幹 곧 뿌리요 핵심이 되는 것이 그 나라의 국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오늘날 삼천 종이 넘는다는 인류 언어 중 11~12위권에 이르러 있는 우리 국어가 요즘 국적 없는 서양말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열린 이 국어 사랑 큰 잔치는 건국 60년이란 이름에 못지않은 뜻있는 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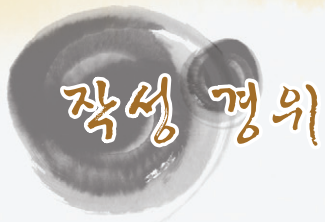
우리 민족이 물질문명에서는 5천년 역사상 한번도 세계 최고의 위치에 가본 적이 없지만 정신문화 영역에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꿈의 첫 출발이 바로 한국어의 보존과 개발 그리고 영토의 확장에 있습니다.

오늘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 행사를 계기로 하여 국어를 아끼고 사랑하는 운동이 거국적으로 확산되고, 우리 한국어가 맨 앞에서 인류 문화를 선도하는 위상을 확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영어 沒入教育이니 영어 公用化論이니 하는 이런 무지몽매한 주장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동시에 국어를 연구하고 지키고 교육하는 일에 평생을 바쳐온 여기 우리들이 좀 더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국어학회장 成煥甲

국어 사랑 서언문



사전 준비(7. 22. ~ 8. 06.)

- 큰 잔치에서 '국어 사랑 선언문' 선포식 개최 확정(7.22.)
- 선언문 내용과 형식, 선포 주제에 대한 내부 논의(7.22 ~ 7.30.)
- 선언문 선포 주제 및 작성 방법 결정(7.31.)
 - 선포 주제 : 큰 잔치 참가자 일동
 - 작성 방법
 - 국어원 내부에서 선언문에 담길 내용 검토 및 시안 작성
 - 선언문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언문 내용 검토 및 초안 작성
 - 행사 기간 중 기초위원회 대표와 참석자 대표들이 선언문 초안 검토 및 최종안 확정
- 국어원 내부 시안 작성(8.01. ~ 8.06.)
 - 시안 3종 작성

선언문 기초위원회 개최(8.07.)

- 국어원 내부 시안 3종에 대한 검토 및 초안 작성 논의
 - 참석자
 - 외부 기초위원 : 민현식(서울대 교수), 김종순(계명대 교수), 안용순(국어교사모임 사무총장), 정선태(국민대 교수), 김서령(작가), 손택수(시인)
※ 조항록(상명대 교수) : 회의 불참, 자료 검토 후 의견 제출
 - 국어원 : 조남호(국어연구기획부장), 정호성(국어진흥교육팀장), 최혜원(국어진흥교육팀 연구관), 조태린(국어연구기획팀 연구사)
- 선언문 형식 확정
 - 선언문의 취지를 설명하는 부분과 선언문 본문을 분리 작성

선언문 초안 작성 및 수정·보완(8.08. ~ 8.21.)

- 기초위원 중 대표 집필자(손택수)가 초안 작성(8.08 ~ 8.11.)

- 기초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수정·보완(8.12. ~ 8.19.)
 - 기초 위원, 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의견 수렴
- 초안 표현 및 문체 수정 회의(8.20.)
 - 참가자 : 손택수(시인, 대표 집필자), 김서령(작가, 보조 집필자), 조남호(국어연구기획부장), 조태린(국어연구기획팀 연구사)
 - 각계 의견을 반영한 수정 초안 작성
- 선언문 초안 완성(8.21.)
 - 분과별 발제, 분임별 토의 주제를 고려하여 완성

선언문 작성 회의 개최 및 최종안 완성(8.22. ~ 8.23.)

- 선언문 작성 회의 개최(8.22.)
 - 참석자
 - 분과 발제자 : 민현식(서울대 교수), 안용순(국어교사모임 사무총장), 조항록(상명대 교수)
 - 분임장 겸 참석자 대표 : 이길재(겨레말큰사전 팀장), 박성규(목동교 교사), 한재준(서울여대 교수), 이미혜(이화여대 교수), 강황구(경북 예고 교사), 박성규(장성중 교감)
 - 국어원 : 조남호(국어연구기획부장), 조태린(국어연구기획팀 연구사), 김선철(국어연구기획팀 연구사), 김한샘(국어정보화팀 연구사), 박정진(한국어진흥팀 연구사)
- 선언문 최종안 완성(8.23.)
 - 선언문 작성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 작성
 - 선언문 작성 회의 참석자들의 최종 확인 및 수정
 - 선언문 최종안 확정

국어 사랑 선언문

21세기 지식 정보 사회를 이끄는 것은 문화이고, 문화를 움직이는 것은 언어다. 언어의 물질이 끊어질 때 문화의 대지에는 가뭄이 들고 그 사회는 궁핍을 면치 못하게 된다. 우리는 모어를 지키지 못한 민족이 역사의 무대 바깥으로 쓸쓸히 사라져 갔음을 잘 알고 있다. 국어를 지키고 가꿈은 곧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돌을새김하고 국어의 지평을 확장한다는 뜻이다.

역사의 폭풍우가 몰아치던 지난 세기에는 국어를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시련의 시기도 있었지만, 광복 이후 우리는 국어를 되살리고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국어는 안팎으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정보화, 세계화의 물결이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더는 낯설지 않다. 국어는 더 이상 우리만의 언어가 아니다. 우리는 모어의 전통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서도 변화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국어의 상을 정립할 때임을 절감한다.

이에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삶의 국어, 창조의 국어, 나눔의 국어'를 주제로 열린 국어 사랑 큰 잔치를 계기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국어는 이 나라의 흙과 물과 불과 바람 그리고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의 숨결이 모여 빚어진 그릇이다. 이 그릇 속에는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생명의 존엄, 평화와 관용, 배려와 선의 등의 가치가 담겨 있다. 국어를 통해 이들 가치를 공유하고 보듬으며 더욱 드높여야 한다.

국어는 늘 새로운 물이 솟아나서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웅숭깊은 샘물이다. 이 샘물에서 끝없이 솟아나온 신선한 사고는 인류의 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우리 문화의 지혜와 슬기가 집약된 한글은 새로운 시대와 어울리며 미래를 여는 상상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한글의 창조성을 한껏 빛내야 한다.

국어는 다양한 빛깔과 모습의 말이 한데 어우러진 숲이다. 이 숲이 세계로 열리면서 더욱 무성해지고 넓어지고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는 이 숲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말의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짐한다.

- 우리는 국어에 담긴 가치를 소중히 하면서 국어를 더욱 갈고 닦아 다음 세대에 전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글이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새로운 문화와 지식의 창조적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 우리는 국어가 열린 소통의 언어로서 세계 언어문화의 공존과 상호 발전에 기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8년 8월 23일
국어 사랑 큰 잔치 참가자 일동

분임 토론

분임 토론 개요

- 1, 2분임 _ 사회생활에 필요한 언어능력 향상
- 3분임 _ 남북한 언어 통일을 위한 실천적 방안
- 4분임 _ 남북한 언어 통일을 위한 실천적 방안
- 5분임 _ 지역어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 6분임 _ 지역어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 7, 8분임 _ 인터넷과 방송에서의 언어 사용 품격 제고 방안
- 9, 10분임 _ 청소년기 창의적인 언어 사용 능력 증진 방안
- 11분임 _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에서의 국어교육 방안
- 12분임 _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에서의 국어교육 방안
- 13, 14분임 _ 외국어 오남용 방지 방안
- 15분임 _ 지역어 교육 방안
- 16분임 _ 지역어 교육 방안
- 25, 29분임 _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위상 제고 방안
- 26분임 _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위상 제고 방안
- 27분임 _ 문화적 상호주의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 방안
- 28분임 _ 문화적 상호주의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 방안
- 30분임 _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언어 환경 조성 방안
- 31분임 _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언어 환경 조성 방안
- 32분임 _ 언어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방지 방안

분임 토론



분임 토론 개요

■ 대주제 1: 민족문화와 국어 I

발제자: 민현식(서울대 교수)

- 소주제 1: 사회생활에 필요한 효과적 언어 능력 향상 방안
- 소주제 2: 남북 언어 통일을 위한 실천 방안
- 소주제 3: 지역어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 소주제 4: 인터넷과 방송에서의 언어 사용 품격 제고 방안

■ 대주제 2: 민족문화와 국어 II

발제자: 안용순(전국 국어교사 모임 사무총장)

- 소주제 5: 청소년기 창의적인 언어 사용 능력 증진 방안
- 소주제 6: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 방안
- 소주제 7: 외국어 오남용 방지 방안
- 소주제 8: 지역어 교육 방안

■ 대주제 3: 문화 창조의 동력, 국어

발제자: 김중순(계명대 교수)

- 소주제 9: 한글의 국가 브랜드화 방안
- 소주제 10: 한글을 활용한 문화 산업 육성 방안
- 소주제 11: 대중의 참여를 통한 국어 지식 생산 및 축적 방안
- 소주제 12: 국어를 세계적인 지식을 창조하는 언어로 육성하는 방안

■ 대주제 4: 세계 속의 한국어

발제자: 조항록(상명대 교수)

- 소주제 13: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위상 제고 방안
- 소주제 14: 문화적 상호주의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 방안
- 소주제 15: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언어 환경 조성 방안
- 소주제 16: 언어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방지 방안(외국인, 새터민, 장애인 등)

■ 분임명 : 1, 2분임

■ 주 제 : 사회생활에 필요한 언어능력 향상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문제점 제기	• 언어 예절 • 바른 호칭 • 잘못된 언어문화 습관화 • 교육현장의 교사는 제대로 된 언어능력을 갖추고 기본 규칙을 알고 있어야 함 • 영어를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 정책적인 뒷받침 부재 • 평가 위주의 국어교육 문제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노력 필요 • 대중문화 이용한 국어능력 향상 • 세대 간 이해 노력 필요 • 사회 가치관 바르게 하는 노력 필요
주제 관련 실천 방안	• 직무연수에 국어능력 향상 내용 포함 • 통일된 화법 등 홍보 필요 • 듣기 강화 교육 필요 • 기업의 입사, 진급에 국어능력 활용 • 적절한 대가가 있는 당근 정책

■ 분임명 : 3분임

■ 주 제 : 남북한 언어 통일을 위한 실천적 방안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문제점 제기	- 본 주제에 대하여서는 (1) 어휘의 문제 (2) 규범의 문제-사이시옷의 문제, 두음법칙, 띄어쓰기 등의 합의 문제(합의는 어려움이 많아 병기의 문제도 고려할, 중국 조선족의 입장), 외래어의 문제- (3) 이념의 문제(언어관의 통일 문제) 등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세 가지 관점에서 규범의 문제는 학자의 몫임(남북한 통일사전, 어문규범 사전). 이념적인 것은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일반인의 몫은 상대방을 배타적으로 보지 않고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상대방을 수용하려는 자세라고 봄. 이런 자세로 상대방의 어휘도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 겨레말큰사전 하나 만든다고 남북한의 언어가 통일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작업이 이루어져 함. 경제 용어사전, 스포츠 용어사전 등 세 부적이고 전문적인 사전도 계속 나와야 할 것임.
주제 관련 실천 방안	- 남북한 통일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를 먼저 논의해야 함. - 규범의 문제는 통일 전에는 해결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됨.

■ 분임명 : 4분임

■ 주 제 : 남북한 언어 통일을 위한 실천적 방안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문제점 제기	- 소설적으로 남북한 언어가 통일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발언하겠음. 남과 북은 이념의 차이만큼 언어구사와 실생활에서 큰 간극을 보이고 있음. 체제와 이념을 대승적 차원에서 용해시켜 예술문화(특히 소설)의 교류를 모색해야 할 시점임. - 북한 소설의 경우, 선동 등의 목적이기 때문에, 주제를 지정해 주면 작가가 쓰게 된다고 함. 비공식적으로 북한 소설을 2권 정도 읽게 되었는데, 낯선 어휘들을 다수 봄. 북한 책과 같은 활자화된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임. -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에 주제가 무거움. 하지만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임. 북한과 우리 언어가 어느 정도 동질성 혹은 이질성을 가지고 있는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음. 고구려와 신라어의 차이가 지금 남북한의 차이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인가 볼 때, 그 당시가 더 큰 폭의 차이를 가졌을 것이라 생각함. 그래서 지금 남북한의 차이는 충분히 좁힐 수 있을 것임.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중국 방문 시 북한 사람과 만났을 때, 일상생활에서는 이질감을 크게 느끼지 못했음. 문화적인 교류가 활성화되면, 언어의 일치는 확대되고 불일치되는 부분은 어느 지점에서 만나 조정되지 않을까 싶음. 표준어/문화어로 표기하는데, 한 단어라 하더라도 의미가 다른 경우가 있지만, 용어를 같이 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고등학교 2학년 문학 중 '국어생활'이라는 교재가 있음. 언어라는 것은 생각의 표현, 문화의 상징인데, 공용어로 쓰는 것은 어려운 일임. 사투리로 다변화되는 것을 참조하면 알 수 있음. 교사, 언론인 등이 언어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진행한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 혼란이 줄어들고 정리가 되어갈 수 있을 것임. - 지금쯤 같이 쓸 수 있는 교과서를 준비해 나가야, 시간, 돈, 충격 등도 완화될 수 있을 것임. - 북한 언어를 학생에게 이야기했을 때, 학생들이 웃음. 표준어가 지방 언어보다 우월하다, 준거의 기준이 된다는 글을 접했는데, 이 두 경우는 모두 인식을 같이하지 못해서 나온 결과임. 북한이나 지방 언어를 우리보다 못하다는 의식부터 바뀌어져야 함. 북한말이 낯설어서 웃을 수도 있지만, 그 보다는 우리말이 더 우월하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 같음.

분임 토론

구 분	발 언 내 용
	- 북한말의 억양을 보고 웃는 학생들을 보고, 우리 옛날 70~80년대 억양도 같았다고 말해 주었음. - 개성 안내원과 이야기할 때 언어의 이질성을 거의 느끼지 못했음. 그들의 삶의 방식, 문화 등이 우리와 별 다르지 않음.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우선 변화해야 할 것 같음. 범교과적 주제 안에 통일 교육의 하위범주로 북한의 언어와 문화라는 항목을 넣어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주제 관련 실천 방안	- 공용 사전이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것임. - 북한 문예작품을 시장에 소개하되, 사전 검열이 필요함. 한국식으로 다시 정리해서 출판할 수 있음. - 정치색이 없는 인문서 등을 우리가 받아들여 연구해 보아야 함. - 드라마에 나온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가능함. 남북한의 국어교과서를 두고 용어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알 수 있을 것임.



■ 분임명 : 5분임

■ 주 제 : 지역어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문제점 제기	- 표준어 규정에서 지역민이 배제되어 있음. - 표준어는 세련되고 지역어는 촌스럽다는 의식이 팽배되어 있어 문제 - 의식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사투리는 나쁜 것이 아님. 신세대어 중에서 '빨름하다', '빨쭙하다'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신세대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사투리 사용을 친구세대를 이어줄 매개로 활용할 수도 있음. - 사투리 사용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국어 교육에서 지역어의 활성화를 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문학 교과서 내에서 지역색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을 가려 쓰고 문화교육도 같이 병행해야 함. 국어과 학습목표에서 방언을 통해 지역문화의 특성을 파악하지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함. - 초등국어에서부터 지역 시인이나 작품의 소개를 통해 익숙하게 하고 표준어와 방언이 대립이 아닌 존중의 관계임을 인식시켜야 함. 지역어를 사용하는 권역 내에서도 표준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에 있어 표준어 규정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과 인식이 이루어져야 지역어와 표준어가 존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 - 향토문화가 드러나는 문학작품이 없음. 지역색을 표현하는 내용이 가미되어 있다면 더 좋은 교육이 가능함. 김소월, 백석 등에 한정됨. - 교과서에 한정되지 않더라도 교사가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교사의 학습목표 설정이 중요함. 8차 교육과정에서 '문화'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맥락상 전체적인 교육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함. 하지만 다른 과목과의 연계가 따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됨. - 영어의 공용화 문제는 지역어와 표준어 관계와 일맥상통함. 표준어 지정을 반대함. 연구단체나 학술기관에서 정해야지 국가에서 정한다면 정치적 관점에서 언어를 보게 됨. 국가가 정했다는 것 하나로 굉장한 문제가 야기됨. 사투리가 배제되고, 사투리 사용을 거부하는 모임이 늘고 있음. - 유엔 등에서 공식 언어로 여러 언어를 지정하는 것처럼 지역어를 우리 언어 안에서 끌어안아야 함. 표준어를 중심에 놓고 지역어를 하위에 놓는 것은 문제가 있음.

구 분	발 언 내 용
	• 교육적 측면에서 표기 정도를 통일하는 것은 필요함. 지역어를 사용하여 어휘가 다양화되는 것은 아주 중요함. 생물학적 용어 정도만 통일해야 함. 표준어 규정에 비속어가 사용됨(털어먹다, 볼때기, 까까중...). •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방언의 인정이 방향을 흔들리게 하지는 않을까 함. • 문어적 관점에서의 권장 규범 정도는 필요함. 영어는 규정이 없고 사전을 기반으로 언어 사용에 대한 권장만이 이루어짐. 표준어는 정치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때문임. • 국가가 국민이 쓰는 말까지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영어의 경우 공식적 영어는 권장의 수준일 뿐이고, 그 외의 언어도 많이 사용될 경우는 그 언어도 인정함. • 우리는 경직성을 가지고 국어에 접근하고 있음. • 언어란 어떤 시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복잡한 문제임. 청소년의 언어를 강제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어의 발전을 저해함. 개방적인 관점에서 언어를 바라보고 지역어도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함. • 외계어의 사용은 어떤가, 자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인식 없이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문자의 변화나 의미에 대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 있다면 무조건 배제할 것은 아님. 오히려 의미를 연구하고 특성을 제시해 주는 노력이 더 중요함. • 현직 교사들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이 무조건 규범을 외우라고 함. • 동일하지 않지만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힘들. 지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언어로 규정해서 사용하면 종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으로 대상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함. 부추, 정구지, 소풀은 모두 조금씩 다른 종임. 멍게, 우렁쉥이 역시 종이 다르므로 복수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임.

구 분	발 언 내 용
	• 도저히 표준어로 대체할 수 없는 지역어는 당연히 사전에 올리고 어휘교육을 해야 함(꿀핍하다 등). 지역어는 지역문화와 굉장히 밀접하므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어를 살려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어 중심의 규정을 완화해야 함. •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지역어를 살려서 알리고자 하는 방식이 많아 긍정적임. 퀴즈프로그램에서 지역어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제시하는 등. • 기자의 경우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 건조한 신문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음. 사투리가 나왔을 경우 그에 대한 고민이 없음. • 법칙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형화되고 협소한 형태의 기사문이 나옴.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표준어는 세련되고 지역어는 촌스럽다는 의식을 변화시켜야 하며 이 둘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존중의 관계임을 인식해야 함.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지역어가 잘 구현된 문학작품을 통해 지역어와 함께 지역문화의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 • 표준어 규정은 국가가 정한 규칙인데 국가가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강제한다는 것은 언어 발전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문어적 관점에서 권장 규범 정도로만 인정하고 좀 더 개방적인 태도로 지역어를 끌어안아야 함.
주제 관련 실천 방안	•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에 있어 표준어 규정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과 인식이 이루어져야 지역어와 표준어가 존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 • 도저히 표준어로 대체할 수 없는 지역어는 당연히 사전에 올리고 어휘교육을 해야 함. • 국어교육에 있어 지역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학 교과서 내에서 지역색을 드러낼 수 있는 말을 가려 쓰고 문학교육도 같이 병행해야 함. • 국어 교과서 학습목표에 방언을 통한 지역문화의 특성 파악이 포함되어야 함.
기타 토의 제안 내용	• 언어문화란 모든 분야에 있어 언어의 문제나 현상을 지칭하기도 하고, 국어 교육 안에서 말하기, 듣기, 쓰기, 문법, 문법 등의 범위 안에서 언어와 관련된 현상을 지칭하기도 함. 즉 후자는 국어문화임. • 학교 교과 과목이 바뀔 필요가 있음.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제시되다 보니 정작 언어 교육이 배제되고 있음. 국어는 국어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으로 두고 다른 영역과 연계된 부분은 따로 보아야 함. • 학생들의 어휘독해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음. 구어적으로는 많이 발달했으나 문어적으로는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고 있음. • 맞춤법도 법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규정 정도로만 제시해야 함. 사이트리 부분의 내용이나, 잉여적 표현 등의 문제점이 있음.

■ 분임명 : 6분임

■ 주 제 : 지역어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문제점 제기	- 제주 방언의 경우 사라질 위기에 처함. 지역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 표준어와 방언의 우위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에 반영하였음. - 교육 당사자의 방언에 대한 의식이 부족함(표준어만 써야 하는 것으로). - 표준어 규정에 대한 개념 문제가 있음(교양). - 표준어 규정이 정해지던 시기(1933년)의 개념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의 문제가 있음(교양 있는, 서울). - 지역어의 활성화가 필요함. - 비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방언의 효과가 있음. 경북 지역의 방언은 거칠다는 인식 때문에 방언을 고쳐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함. - 방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표준어의 통일성이 전체 주의적인 폭력으로 방언을 위협할 수 있음.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방언이 희화화 됨. - 학생들의 방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함.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필요에 의한 방언 교육이 필요함. - 방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표준어의 개념을 국민 모두가 의사소통이 잘 되는 말의 개념으로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음. 지역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지역어가 필수적임. 지역 간의 문화 상대주의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그릇된 지역 의식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구 분	발 언 내 용
	- 공식어로서 표준어를 교육하고 방언(일상어로서의)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 - 다양한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재미(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와 흥미를 높임. 방언 교육을 통해서 문학 교육(풍부한 어휘와 표현)을 높일 수 있음. - 학교 교육에서 표준어와 방언의 가치를 동등하게 교육.
주제 관련 실천 방안	- 방송 등에서도 방언을 사용할 수 있음. 교육청에서 제주어(방언) 말하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음. - 방언을 사용하여 방송 - 방언에 대해서 신문사설이나 투고를 통해 인식을 넓힘. 표준어 교육에 있어서는 발음 교육과 어휘 교육을 강화해야함. - 지역 단위의 이야기대회(지역말을 잘 살려서 쓰는 학생, 즉 표현력을 높이 평가)를 개최함. 지역 교과서(실천의 문제가 있음)의 편찬. - 지역화 교육과정이 5차 교육 과정에서 도입되었음(사회과에서만 도입). 6차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육에서 지역화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움. 각론(세부 교육과정)에서는 지역화에 대한 언급이 없음. 총론과 각론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국어교육 과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7차, 8차 교육과정(현재 진행중)에서도 각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음). 낱말 차원에서는 방언을 잘 반영한 겨레말큰사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방송이 표준어와 방언 사이의 그릇된 인식을 조정하는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음. 중앙 방송의 우리말 나들이(표준어)와 비슷한 지역어 소개 프로그램이 필요함.

분임 토론

■ 분임명 : 7, 8분임

■ 주 제 : 인터넷과 방송에서의 언어 사용 품격 제고 방안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문제점 제기	• 방송인들의 언어 사용 문제 ㄱ. 비규범적이거나 잘못된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방송은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ㄴ. 외래어의 남용. • 인터넷 언어 사용 문제 : 인터넷 댓글에 속된 표현이나 욕설이 많음.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국립국어원 주최로 방송사, 신문사와 외래어 남용 문제에 관련한 세미나를 자주 열 필요가 있음. • 올바른 언어 사용을 위하여 국가가 방송사, 신문사에서 외래어 남용, 비규범어 사용 등에 대해 규제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기초어휘, 문법, 문학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함. 국가가 영어몰입교육에 앞서 정책적으로 국어교육을 더 강화해야 함. • 방송을 이용한 표준어 보급.



■ 분임명 : 9, 10분임

■ 주 제 : 청소년기 창의적인 언어 사용 능력 증진 방안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문제점 제기	• 대화 부족 · 게임 중독 등으로 자기표현을 못함(환경문제). • 초중등 국어교육 시간이 많지만 창의적 표현(말하기/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음. • 교육과정에서 교과외의 양이 많음. • 평가의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막음 (틀 속에서 사고/지식 중심 사고). • 한정된 어휘 사용(부사 '너무' 등), 비속어 사용(비속어로 감정표현하기 때문에 다른 표현은 사용하지 않음)의 문제가 있음. • 지나친 경쟁중심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할 여유가 없음.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독서, 시 창작 활동을 많이 하면 좋음. • 교육 현장에서 '생각거리'를 제시하는 것이 좋음. • 논리적 글쓰기도 좋지만 흥미나 독자/청자를 고려한 글쓰기 교육을 해야함. • 지역별 도서관을 활성화 함.
주제 관련 실천 방안	• 협동학습/모둠학습 • 어휘/구/관용어 등을 암기시킨 후 확장된 글쓰기를 함. • 사전 찾는 습관을 기르게 함. • 교사가 활동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교사의 실천 노력과 제도적 환경이 필요함.

분임 토론

■ 분임명 : 11분임

■ 주 제 :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에서의 국어교육 방안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문제점 제기	• 활동의 각 단계별 학습 내용과 단계별 학습 목표가 교사와 학습자들 모두에게 뚜렷하게 인식되지 못하여, 학습목표 자체가 희석됨. • 과도한 영역별 세분화로 인해 영역별 연계화 및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 • 학습자들의 국어에 대한 관심 부재와 학습 의욕 저하 • 학교 현장에서의 실제 수업 내용과 평가 내용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큼.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8차 교육과정 집필진의 다양화 • 수업 내용 및 평가 방법의 체계화 · 단계화 · 지표화 • 국어 전문 인력의 양성
주제 관련 실천 방안	• 가르쳐야 할 지식과 방법에 대한 고민 이전에, '왜' 가르쳐야 하는지를 학습자에게 분명하게 전달, 인지시킴. • 언어능력 평가지를 개발할 때, 교육계나 학계를 포함하여 아나운서, 연극인 등 다양한 전문인들을 포함함.
기타 토의 제안 내용	• 초등 7차 교육과정이 너무 활동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짐. • 활동의 각 단계별 학습 내용과 단계별 목적의 명시화 부재로 인한 학습 목표가 희석화됨. • 과도한 영역별 구분으로 통합 교육의 부재 • 중등 교육 활동 교육이 너무 세분화, 단편적 나열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영역별 연계 방법 모색이 시급함.

구 분	발 언 내 용
	• 국어과목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학습 동기 유발 문제 •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 때문에 수업 현장에서 학습자의 자율권과 활동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함. • 수업과 평가의 기준과 내용의 불일치 • 교과목 수업 내용 양적 부담감 • 국어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 현장에의 배치 • 활동 중심의 교육 과정을 실질적으로 평가 방식으로 개선해야 함. • 국어 능력 향상이라는 목표에서 국어능력(말하기/듣기/읽기/쓰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기준과 방법이 모호함. • '국어 능력'이란 개념 및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도 참고자료(자료, 교재, 지침서, 참고서 등) 부재 • 지식의 파편화, 부분과 부분의 관계 분석 능력 미흡, 전체적인 이해와 조망 인식 부재, 대학 입시 종료 후 국어의 실제적 필요성 자각 부재 •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단계별 교육을 내국인 국어 교육에 도입하면 효과적일 듯함 • 국어교과서 집필진(각 영역 및 부분의 전문가 중심)의 다양화 • 각 단계별 위계화 · 지표화 작업의 부재(내용, 수준의 위계화 필요) • 국어 능력의 단계별 객관적 평가와 학습자 스스로의 성취도 확인을 통한 학습동기 유발 및 학습만족도 고취 • 각 영역별 통합 이해를 묻는 문제 유형 개발(예: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어 능력시험)

■ 분임명 : 12분임

■ 주 제 :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에서의 국어교육 방안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문제점 제기	- 교과서 작품의 수준이 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움. 문해력이 낮아 문장의 내용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음. - 교육과정상에서 교과서 편제의 연계성이 부족함. - 외국어의 중요성만 생각하고 우리말의 가치를 잘 모름. 국어 교육의 중점 이 시대의 유행에 민감함.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작품 감상 후 창작해 보는 과정 제시 - 교과서 편제를 위계성을 살려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변화 - 논술 대비 주관식 평가가 늘어나면 수행평가의 비중축소 - 국어교육의 목적, 목표 구체화하기
주제 관련 실천 방안	- 수행평가 활동 강화를 위한 시간 확보 - 교과서의 양을 축소 -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 글쓰기, 문해력 기르기, 맞춤법 능력 향상 위한 지속적 운영 - 토론수업 강화
기타 토의 제안 내용	- 언어능력 향상은 국어교사만의 문제가 아님. 전 교사가 모든 교과에서 꾸준히 치밀하게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표준어 규정에서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여 다양한 방언 수용 - 한글날 공휴일화



■ 분임명 : 13, 14분임

■ 주 제 : 외국어 오남용 방지 방안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문제점 제기	요즘 학생들이 외국어를 많이 씀. 외국어 오남용의 주범은 신문, 방송 등의 매스컴이라고 할 수 있음. 학생들이 외국어 오남용을 줄이고 순화된 우리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한국말을 쓰는 것을 자랑스럽다고 생각해야 함. - 선생님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음. 선생님들부터 순화된 어휘 사용에 솔선해야 함. - 학생들에게 국어 애호 의식 제고를 위해서 우리말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야함.
주제 관련 실천 방안	- 소모임 등을 통해 재미있게 한국말을 쓰는 것의 즐거움을 알고 그런 모임을 확산시켜 나가야 함. - 상상플러스와 같이 아이들에게 국어 순화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순화할 용어"를 제시하고 스스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공함. - 학교 현장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하는 외래어 순화운동을 홍보하고 활용함. - 학교 현장에서 10분 국어 애호 교육 실시 운동을 전개하여 학생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기타 토의 제안 내용	- 국제중에서는 국어와 국사만 국어로 하고 나머지 과목은 외국어로 교육함. 외국어 오남용 우려가 있음. - 외국어로 되어 있는 간판을 우리말로 바꾸려는 운동이 필요함. - 정치가들의 이니셜(MB, JP, DJ 등)을 우리 이름으로 말했으면 좋겠음.

분임 토론

구 분	발 언 내 용
	- 패션 잡지, 인테리어 잡지 등을 보면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힘든 외국어가 많음. 잡지에서도 우리말을 많이 써야 함. - 이름이나 지명 등도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쓰는 것이 필요함. - 욕설과 비속어가 경멸감이나 모멸감을 주는 말임에도 뜻을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음. 욕에 담긴 뜻을 알려주어 학생들이 그 말을 썼을 때 상대방이 받는 상처를 느낄 수 있어야 함. 좋은 언어뿐만 아니라 나쁜 언어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가르쳐야 함. - 외국어 오남용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좋은 순화어가 나오면 시상을 한다든지의 장려책을 강구해야 함. 학교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분임명 : 15분임

■ 주 제 : 지역어 교육 방안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문제점 제기	- 지역어 교육이 지역어 활성화인지 그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음. - 주제에서 의미하는 지역어 교육은 학생들이 지역어를 수용하는 인식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 같음. - 현재 지역 문화를 살리기 위해 사투리 경연 대회와 같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음. 우선 지역어를 왜 살려야 하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함. 지역어의 가치는 지역의 문화 특성을 담고 있으며, 고어(古語)와 같이 어휘의 풍부성, 다양성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임. - 소설을 쓰는 저는 현재는 서울에 살고 있지만 부산 출신임. 소설 속에서 지역어를 썼을 때 말로 들을 때와는 달리 매끄럽지 못한 느낌이 듦. 지역어를 말과 글로 표현했을 때 느낌이 다름. - 각 지역어들을 사용함에 있어 일상에서 부끄러워하거나 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교육에서 지역어들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해치는 교육이 갈려 있기 때문임. 한글의 발전과 세계화는 한글 내에서 가진 많은 어휘와 다양성을 가져야 더욱 폭넓게 가능해질 것임.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우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쓰되 사적인 자리에서는 지역어를 쓰도록 하고 있음. 사투리의 강점, 기능,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함. - 대부분 지역어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으나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함.

분임 토론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실천 방안	- 지역어를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매체를 통한 지역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함. 또한 자국의 언어 시험이 있는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국어 능력 시험과 같이 지역어 시험을 만들어 지역어의 저변을 확대하였으면 함. 그리하여 지역어의 소중함과 정체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생들을 지도할 때 지역어 연구 동아리나 지역어 문화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교과서 단원에도 지역어에 관한 내용을 좀더 수록하여 학교 교육에서 지역어가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함.
기타 토의 제안 내용	- 국어와 영어는 우리나라에서 서로 배타적인 성향이 있음. 그러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영어라는 외국어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쉽게 할 수 있는 면도 있음. 영어를 무조건 도외시하기보다는 국어를 가르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영어를 이용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면 좀더 쉽고 빠르게 가르칠 수는 있으나 점차 영어에 대한 의존이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함. 그보다는 한국어를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의 기술적 측면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봄.

■ 분임명 : 16분임

■ 주 제 : 지역어 교육 방안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문제점 제기	- 교과 내용 속에 '지역어'에 대한 할당이 적음. - 방송과 교육을 통해 표준어 교육과 우리말에 살아있는 예쁜 토박이말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안타까움(북한어 포함). - 아름다운 우리말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자는 교육이 부족함. - 한글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교과 시간이 부족함. 자료가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자료가 존재함. 지역어에 대한 편견, 인터넷 등의 사회방언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함. - 지역어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 자체가 위기임. - 지역어로 지역감정 유발시켜서 분열이 조장되는 것 염려해야 함. - 지역어 이전에 사대주의 사상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함. - 중세국어 연구 자료로서의 지역 방언의 의의와 국어 어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입시에는 안 나온다는 문제가 있음. 문학적 경험이 없는 문학 교육이 이루어짐.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어도 지역어와 같이 고려하여야 함. - 북의 우리말을 살려 쓰는 태도나 방안 등은 받아들이거나 많이 접하여 문화적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함. 표준어를 공용어로서 배우되, 각 지역의 특색언어를 살려 쓰는 교육도 해야 함(사라져가는 토속어, 우리말 찾기 대회, 한글날 행사 등으로).

분임 토론



구 분	발 언 내 용
	- 초등학교에서 달소리 홀소리를 배우는 시간이 짧음(교육과정 배정시간). 고로 가정에서 사전 교육이 필수임. - 처음에 배울 때부터 우리말의 중요성이나 원리, 정서법 등에 시간과 수고를 들여야 후에 올바르게 쓰지 않을까 함. 아니면 유치원 교육에 이러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봄. - 최명희의 '혼불'에 전라도말의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들어 있음. - 사명감을 가지고 국어의 아름다운 말들을 쓸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함. - 직설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대신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살려 써야 함. - 논술을 강조하다 보니, 서정은 없어지고 서사만이 남게 되었음. 아이들의 능력을 살려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중세국어 연구 자료로서의 지역 방언의 의의 등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함.
주제 관련 실천 방안	2주에 한 편씩 시 낭송 및 시 암송을 함. 시 속의 방언들을 설명해 주는데, 시 속에 아름답고 예쁜 말의 습득이 빠름. 아름다운 우리말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취지에서 암기를 권장함. - 국어의 위상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문제임(일종의 사대주의). 정서적 거부감이 있음(소통을 지향한 것이 아닌 지역 분열 조장).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의하여야 함. - 지역어를 활용한 다양한 교과 활동 등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학생들의 언어 체험을 제공함. - 국어교과에서만 지역어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회, 도덕 교과 등 통합 교육적 교과 활동을 제공해야 함. - 교과 문학 제재를 선택할 때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의 문학 작품을 넣도록 고려하고, 초, 중, 고 교육과정을 통시적으로 고려해 보아야함. - 한글날 행사를 국어의 행사가 아닌, 국민의 행사로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시간적, 물적 뒷받침이 필요함.

■ 분임명 : 25, 29분임

■ 주 제 :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위상 제고 방안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문제점 제기	- 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자원봉사자(무자격)에 의해 비체계적, 무방법론적으로 접근되고 있음. -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교원들의 자격, 정책들의 표류, 실적 위주의 교육 등이 문제임 - 한국어교사 및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연구, 개발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함. - 중국을 예로 들면 외국인이 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표준 교재가 부족함. - 국어중합발전계획을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논의하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국어, 한국어교사의 체계적인 양성을 정규 학문화할 필요가 있음.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기관별로 1회성이 아닌 국가정책화를 통해 한 기관의 담당부서가 국내외를 총괄하여 담당하도록 함. - 한국어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응하여 더욱 활성화해야 함. - 정부의 한 기관에서 하나의 체제로 다문화 사회의 한국어 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등 일관적으로 모든 것을 통합할 수 있는 기관 선정이 필요함. - 자원봉사자(무자격)에게 자격을 갖추도록 정부 차원에서 일정 교육과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함.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정책의 수립 -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 - 한국어 표준 교재 제작 - 한국어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양성 계획 수립 - 학원, 사회교육 기관의 한국어교사 및 교육에까지 관심 확대

■ 분임명 : 26분임

■ 주 제 : 세계화 시대의 한국어 위상 제고 방안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한국어의 위상이 제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위상이 제되어야 함. 현실적인 방안으로 한국어와 관련하여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것을 세계에 널리 알리다 보면 한국어의 위상이 제고될 것임. 그 예가 한글임. - 국어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과 문자 입력 장치의 개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영어 교육 위주의 국가 정책, 영어 몰입 교육 등으로부터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높여야 함. - 도시를 알리는 구호 사용에 있어서 영어 사용이 심함. 한국어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국내에서부터 위상 강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를 알리는 구호도 우리말을 사용해야만 세계적 위상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임. - 외국 유학생, 이주여성 등의 한국어 교육이 중요함. 외국 유학생의 경우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 및 한국어를 널리 알리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임. - 국가적 지원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임. -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를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함. - 외국인이 한자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문제임. -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의 입력을 하다 보면 한글의 전파에 도움이 됨. 그래서 휴대폰 문자 입력 방식의 통일이 필요함. - 한글날의 위상을 강화해야 함. - 상품명 표기에 있어서도 한국어 사용을 강화하면 상품의 수출을 통한 한글도 수출될 것임.

■ 분임명 : 27분임

■ 주 제 : 문화적 상호주의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 방안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문제점 제기	- 문화적 상호주의란 지금까지의 일방적이던 문화식민주의 시대에서 상호 공존의 방향을 목표로 하는 용어임. 문화적 상호주의만 너무 강조하면 문화의 특수성이 배제되지 않는가? - 상호 특수성(지역, 국가, 민족)을 인정하고 접근해야 함. 세계화 과정에서는 '우수문화'를 취사선택하고 싶은 것임. 문화적 상호주의의 접근에 있어서 일반화를 바탕으로 상호 특수성을 인정하며 공유해야 함. 특수 문화 중 우수 문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함. - 문화는 선택이지 주입이 아님. 문화적 상호주의만 강조하지 말고 '공유'의 태도를 가져야 함. - 주제가 너무 포괄적임.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문화적 상호주의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 방안이라는 게 방법론적일 수도 있고, 이론적일 수도 있음. - 한국학과 한국어 교육은 다른 부분임. 좀 더 구체적인 주제로 바뀌야 함.
주제 관련 실천 방안	- 다문화 사회를 접근하는 태도는 상호 문화의 기본 감정(문화)을 공유하는 데에서 출발하는 게 좋음. 전통 문화, 현대 문화를 세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함(예: 민족 시조의 날). 또한 상대국의 문화도 함께 공유해야 함. 해외 파견 교사수가 너무 부족함. 교사의 구체적인 양성이 필요함. - 문화적 특수성-한국 전통의 얼, 전통 문화-를 추출해서 한국의 정신문화를 DB화하여 한국어 교육에 포함해야 함. 교사 교육이 필요함.

분임 토론

구 분	발 언 내 용
	• 해외 파견 교사를 양성할 때 국가의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함(보수가 너무 적음). 한국어 교육, 한국어 문화 교육을 위한 학습 자료, 교수 자료의 개발과 확보 등이 필요함(해외 동포 대상, 국내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등 대상도 체계화해야 함). • 이주여성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교육 환경의 개선도 아울러 필요함.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엄마와 부인, 며느리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단계도 필요함. 문화라고 해서 전통문화만 고수해서는 안 됨. 여러 문화들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 설정이 필요함. • 교사의 학습자 나라 문화와 언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함.
기타 토의 제안 내용	•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교육시설 및 기관도 설립해 줘야 함.



■ 분임명 : 28분임

■ 주 제 : 문화적 상호주의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 방안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문제점 제기	• 한국어교사들이 한국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만 학습자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됨. 문화의 소통에 있어서 한국 문화와 다양한 나라의 문화들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언어 교육의 도입이 필요함. 문화상호주의를 주장하면서도 한국이 중심이 되어선 안 됨. • 문화를 동화시키려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과거와 현재에는 다양한 문화를 복합적으로 함께 교육할 수 있는 것이 공존되어야 함. 국제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볼 때 우리 문화가 우월하기 때문이라는 관점은 버려야 함.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문화 교육의 관심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존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함. • 외국인을 가르치는 교재 내에도 문화적 상호주의에 대한 기본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음. • 외국인들과 함께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우리 국어를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것이 교재에 반영되어야 함.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국가의 등장인물을 배치한다든가 하여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 문화적 다양성이 드러나는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한국어 교육에 더욱 적합함. 우리의 언어와 함께 그들의 문화를 공존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연구하여 우리의 문화만을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문화와 함께 적용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현재의 대학중심 교육을 인정하되 일반 사회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교재를 개발하고, 그에 걸맞은 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함.

분임 토론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국제적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함. •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문화상호주의에 관한 정확한 개념이 반영된 교재 개발이 가장 필요함.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교재를 빨리 만들어 주어야 함.
주제 관련 실천 방안	• 지자체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공존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함.



■ 분임명 : 30분임

■ 주 제 :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언어 환경 조성 방안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문제점 제기	• 결혼 이주여성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했을 때의 문제점 • 귀국 자녀들의 문화적 충격 문제 및 외국인 이주자 자녀교육의 문제점 • 다문화에 대한 내국인의 심리적 수용 문제(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이야 하는 내국인들이 인식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새터민과 관련한 문제까지 고려해야 함. • 교사의 전문성 문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가 있으므로 연수 및 프로그램 마련 이 시급함. • 방과 후 활동 학습을 위한 전문적인 교재가 없음. 다문화 가정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사도 힘들. • 다문화 가정의 주체인 어머니(여성 결혼이민자) 교육이 필요함. 어머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와의 거리가 멀어져 실제 가정이 유지 되는 것이 어려움. •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일본의 예). • 교육환경이 이루어져 있지 않음. 영상 자료 등 부교재 개발이 시급함.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교원 양성이 필요함. 다문화 가정 자녀들 또한 공교육 속에 들어와 있기에 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시급함. 교과부, 교육청과 연계하여 꾸준히 받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 진행이 필요함. 심화 연수/원격 연수로 다문화 사회 대처 • 교육 방법론 구축

분임 토론

구 분	발 언 내 용
	• 다문화 가정의 주체인 어머니(여성 결혼이민자) 교육이 필요함. • 초등학교 교사에게는 한국어 교육 차원의 언어교육이 필요하지만 중등 이상에서는 각 지역별 과목 담당 교사를 교육하여 주말 공동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주제 관련 실천 방안	• 정책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가족 구성원 모두의 교육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교육방법의 구축, 더 나아가 국민 전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축이 필요함. • 초등학교 교사들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대국민 홍보를 병행해야 함. 이주 외국인들을 심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야 함.
기타 토의 제안 내용	• 한국어의 오남용이 문제이고, 언론매체가 주요 책임이 있음.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잘못된 한국어를 배우고 있음.

■ 분임명 : 31분임

■ 주 제 :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언어 환경 조성 방안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문제점 제기	• 국제결혼가정 내 언어소통 문제 해결이 필요함.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시간이 부족함.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방송 수업의 효과성을 고려해야 함. • 제3세계에 관한 이해 부족과 지나친 영어 위주의 교육 • 한국인들의 다문화적 인식 부족, 타 인종에 대한 차별문제 • 한국어교재에서 지나치게 한국 역사와 문화만 강조(문화 상호주의에 어긋남) • 지루한 커리큘럼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이웃 이주여성이 한국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 친교와 도움 모색 • 한국인 남편의 적극적 노력 필요 - 이주여성에 대한 정신적 멘토가 되는 것이 중요함. • 다문화가정 시범학교 운영(교육청), 지역(읍, 면) 단위의 지역문화센터 상시 운영 필요 • 제3세계의 역사와 문화, 그 이웃을 이해하려는 자세, 국가적 차원의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 교육 확산 • 한국교대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전공 개설 •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를 통한 언어문화보급 필요. 종단별로 한국어보급에 일조할 수 있는 노력 필요. 다문화가정을 위한 매체의 노력 • 문화다원주의적 인식 확산 필요. 한국어교사로서 대조언어학적 기본지식이 있어야 함.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실천 방안	- 주민자치센터 한국어수업 운영과 같은 구체적 운영 필요. 지자체에서 이주 여성 남편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필요 '베트남의 날'처럼 하루를 일개 국가의 날로 지정하여 축제를 벌이는 등 이해하고 화합하려는 노력 필요 - 지역별 국어전공자의 방과 후 지도 연계(일부 실시 중)
기타 토의 제안 내용	한국어교육의 담당부처 중복 (※문화관광부 - 한국어 교사자격증, 교육인적자원부 - 방과 후 수업 여성복지부 - 이주여성교육, 이주여성인재 활용)



■ 분임명 : 32분임

■ 주 제 : 언어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방지 방안

구 분	발 언 내 용
주제 관련 문제점 제기	- 어디까지 언어문화적 소수자로 봐야 하는가? '언어 문화적 소수자'라는 말은 모호함.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언어 구사 능력은 우수하지만 사회, 문화적 이유로 차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차별',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제도, 문화에서 나타나는 차별'로 구분하여 접근하자. -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경우 언어보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이 많은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화권이 다른 사람의 경우 의식의 다름에서 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제 관련 해결 방안	- 언어 문화적 소수자(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곳(장소)에 적극적인 지원 방안(가령, 문화센터 등)이 필요함. -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시행 중이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음. - 언어교육과 달리 의식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 중임(가령, 토요 학교). - 언어능력, 의식 차이를 모두 아울러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자 하고 있음.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함. - 우리 식으로 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함(사교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를 인정하고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임. - 다양한 언어 문화적 소수자에 따른 접근방식이 달라야 함.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론화가 되어야 함. 자원봉사 인력을 제도화해야 함(전직 교사나 정년 교사들의 활용).
주제 관련 실천 방안	- 국가의 제도를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회봉사를 할 생각을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함. - 이중언어인을 인정하고, 한국인으로만 살도록 하지 않고 한국에서 그들의 이중언어, 문화인으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자.

제만나목

이런전초로어린百...
저홀배이셔도
모름내제브들시러퍼디물...
라내이를為...
다의여수빙...
그저홀...
이런전초로어린百...
저홀배이셔도
모름내제브들시러퍼디물...
라내이를為...
다의여수빙...
그저홀...
이런전초로어린百...
저홀배이셔도
모름내제브들시러퍼디물...
라내이를為...
다의여수빙...
그저홀...

“뜻이 깊고 속이 넓은 우리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국어(한국어) 관련 정부 지원 필요

- 국어를 사랑하고 책을 만드는 출판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안현진
-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 출판물에 대한 지원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 우리말 어휘를 DB화 하는 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최운천
- 진정한 한국어의 세계화는 국어사랑과 사랑 실천을 위한 국가적 지원에서 출발합니다. 송향근
-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중에는 여러 곳에서 중복 지원을 받는 기관도 있지만 전혀 지원을 못 받는 곳도 있습니다.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출판사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 한국출판에 지원금을 많이 주세요. 박태훈
- 조금 말고 특색 있는 고급 한국어 교재와 출판물에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종훈
- 한국어 관련 연구원 및 출판사에 나라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적이 다른 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교재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날의 공휴일화

- 한글날을 공휴일로 되 지정해야 함을 제안합니다. 이금순
- 한글날을 공휴일로....
- 한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얼'을 지키는 일! *한글날 공휴일로 다시* 유재연
-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한글날에 대한 인식 없이 유아무야 넘어가요. 한글날을 국가 축제일로!
-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홍종명

- 한글날 공휴일 제정 부활 및 아름다운 우리말 쓰기 대회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대구 고산중학교 교장 한흥기
-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과학적인 언어가 우리 한국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한글날을 휴일로
- 한글날은 공휴일로 해주시기 바라고 한글날 기념식에서는 국악으로 행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역
- 한글날을 공휴일로 정하기 문금순



국어(한국어) 정책 및 제도 개선

- 아름다운 토속어 사라져가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한글날 행사로 지역 교육청마다 그 지역어를 가지고 문제를 내고 방송에서 공용하자. 강현중학교 백봉현
- 지역 언어를 더 소중하게 보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김중순
- 모든 관공서의 공문을 순 한글로 표기합니다. 송춘길
- 모든 관공서 문서를 한글로 쓰는 법제화를 실천하시기를 우리말로 학문하기 회장 정현기
- 한국을 상징하는 첫 번째 요소인 한글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 국제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한글 맞춤법이 자주 바뀌는 이유와 시대적으로 변천하는 어법에 대한 한글학회의 대안을 바랍니다. 한국소설가협회 윤재룡
- 맞춤법 좀 자주 바꾸지 마세요.
- 맞춤법 자주 바꾸지 마세요.
- 우리말 맞춤법 너무 어려워요. 좀 더 생활과 가깝게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연구 부탁드립니다. 새로 한글을 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정민
- 띄어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쉽게 국어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지영
- 국어(한글) 사랑이 곧 정체성! 한글 관련 문화산업을 육성해 주십시오.
- 한글 능력시험을 입시와 입사에 반영해 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 입사 시험, 공무원 시험 등에 한국어(국어) 능력 시험 등을 도입 또는 생활용어 위주로 강화하여 올바른 사용습관을 갖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 공철민
- 영어 몰입으로 야단인데 100년 전의 우리 국어라도 바로 알고 익혀 후손에게 물려 주자. 한글 반포 전후 국어연구가 시급합니다. 영남대학교 한국어 연수회 국학 대구경북지구
- 수출입 사무소에 상품명칭을 국어로 하지 않으면 반입금지.
- 국어를 고급언어로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어번역원 설립 등
- 문화 다양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 상호주의 실현합니다.
- 한글 사용 장려를 위해서 외래어나 외국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선여중 김홍섭
- 우리말로 학문적 개념들을 갈무리하는 체계적 사업을 지원해 주세요. 항공대학교 구연삼
- 다른 언어에 비해 우리말의 변화는 너무 심합니다. 불과 100년 전의 글도 술술 읽을 수가 없으니. 생각의 나무 출판사 남은영
- 국어 중흥을 위한 제안들이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잘 입안되었으면 합니다. 한용운
- 창조적인 국어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국어(한국어)교육 정책 및 교육 강화

- 학교에서의 국어수업을 현재보다 더욱 늘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8차 교육과정 개편 시 반영 요망) 풍동중학교 손성길
- 중·고등학교 국어 문법시간을 두 배로 늘려야 합니다. 조경숙
- 국어과목의 비중을 높여 국어의 우수성과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금남고등학교 최하나
- 한국어의 변별력 강화 방안도 같이 마련해 주시기를 박광민
- 국어교육은 국어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훈
- 멋지고 우수한 우리의 국어로 우리 민족의 생각을 담은 우리 민족 고유의 정형사인 '시조'를 우리 가 더욱 사랑하고 배우며(초등교육과정) 세계에 널리 알리자. 서울 광남초등학교 김태운
- 한글교육, 국어교육이 잘 되어야 외국어교육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김재욱

- 영어를 외쳐대는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말, 글을 등한시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승노
- 어릴 때부터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제도권 교육의 틀 안에서 동기 부여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초등학생 대상 맞춤법 대회 등 '한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 교사 재교육(전 과목) 국어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유행어, 통신어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우리말로 된 시 낭송 우리 시 낭송을 생활화하기를 오 명자
- 초등학생들의 어휘양이 줄어들고 극단적인 단어와 비속어들의 사용이 늘어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유로운 참여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우리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경남 하동읍 하동초등학교 정효영
- 한국어가 세계어가 되는 날이 그려진다. 그날까지 영어의 장벽은 높기만 한데 현실적으로 그 적절한 타협점은 없는 걸까? 무거운 어떻게 맞춰야 할까?
-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후 연수로 한 달 외국현지 체험을 한다. 영어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말 먼저 정확히 알고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우선 먼저 교사들도 우리말에 관심을 갖고, 연수도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영상매체를 이용한 우리말 사용 안내 프로그램도 만들어 보급하면 어떨까 합니다. 한글 사랑 쪽! 김옥화
- 입사시험과목, 진학과목에 영어 점수를 낮추고 한글 관련 점수 높이기
-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학교의 입시전형에 국어인증제를 실시한다면 어떨까요? 금남고등학교 최하나
- 문화 상호주의적인 방법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해 주세요. 김영희
- 언어활동 부분에 주안을 둔 실용성 있는 한글·국어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안 여고 오세영
- 영어 어휘실력을 위해 노력하듯 우리 국어 어휘력 넓히기에 더 큰 노력을 윤혜정
- 영어보다도 우리말, 한글을 먼저 배우고 철저히 가르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택영
- 아이를 가진 학부모들이 먼저 한국어·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다방면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학부모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 영어 교육 열풍 때문에 국어 교육이 소홀해집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김지영
- 예전과 달리 어른에 대한 언어 예절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상과 자리에 어울리는 말을 쓸 수 있도록 국어 교육을 해야겠습니다. 장선문

한글(한국어)의 순화

- '우리말 바르게 알기'라는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되어서 인터넷 용어도 우리말화 되었으면..
- 우리 한글에 외국어의 단어들만 차지하는 자리가 자꾸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그 단어가 한글인 줄 알고 자라지 않겠나 싶어 걱정입니다. 우리 글을 찾는 데 모두 참여합니다. 하동초등학교 정효영
- 흔히 '저희 나라'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맞다.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주관인 없는 말이다. 자기 느낌과 감정은 분명히 말해서 '좋다, 아니다.' 분명히 말해야 된다. 소설가 박충훈
- '입말'과 '글말'의 차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살아 있는' 말과 교과서적인 '규범적인' 말의 '차이'를 너무도 크게 느끼는 방송인입니다. 변화를 수용하되, 우리말의 아름다움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말 교육이 널리 이뤄질 수 있길 바랍니다. TBS 교통신방 아나운서 정연주
- 인터넷 용어의 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너무 줄임말로 하여 우리말이 손상됨이 애석합니다. 소설과 협회 회원 김영환
- 방송프로그램의 사용 언어를 순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김은미
- 인터넷에 범람하는 외계어와 은어가 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강민지
- TV, 라디오 검열을 통해 국어사랑, 표준어사용 위원회, 모니터링 운영
- 옥외광고물 표기는 한글을 크게 하기 바람 김택영
- 영어로 된 회사이름도 한글로 우리말로 하기 바람 김한별
- 공공기관 및 각 기관 보고서, 공문 등에 외래어, 영문 이니셜을 사용 못하게 우리말 글 넓히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 대중매체에 외래어가 너무 많습니다. 대중매체가 앞서서 우리나라 말을 많이 씁시다. 오민경

- 방송언어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박재훈
- 모든 국가 기관단체의 명칭을 국어로 먼저 한국소설가 협회 박종운
- 공문서, 공적서류 등에 한문, 무분별한 영어, 외래어 등을 대체할 좋은 우리말을 찾아 상용화하자. 홍길여
- 'ㅎ'의 뒷점을 잘못 쓸 경우 '금' 혹은 '궁'으로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함. 조정선
- 고운 말 지킴이 교육 언어순화에 적극 참여.
- 요새 방송에 막말과 욕설이 넘쳐납니다. 방송에서라도 바르고 고운 말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슬기
-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인터넷 신조어의 순화 관리 방안 마련 필요 임준서

국어(한국어) 교육 및 교재 개발

- 올바른 우리말 생활 너무나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성남여자중학교 김선희
- 생활 속에 일상화된 어려운 한자어 대신 예쁜 우리말을 썼으면 해요. 예) 좌우 ㉠ 왼쪽, 오른쪽 / 절취선 ㉡ 자르는 선 등 조정희
- 법률용어를 쉽고 이해하기 쉬운 국어로 사용합니다. 임진서
- 영어 배울 때는 참고할 만한 좋은 사전이 많은데 우리말 사전은 몇 가지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정리
- 다양하고 우수한 한국어 교재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정
-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사용하도록 해 주세요. 김길순

국어(한국어) 관련 교재 및 콘텐츠 개발

- 한글 서체 디자인이 많았으면... 박승범
- 한글의 다양한 글씨체 개발과 디자인 접목
-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우리글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한글이 나중에 싱싱한 이파리와 튼실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잖아요. 두산 동아 사서 기획팀 박준택
- 외국인들 중 한국어 독학하는 이들을 위해 재미있는 한글 학습 CD를 개발해 주세요

제언 나무

요. 영어 학습을 위한 CD는 많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우리 아이들이나 외국인들이 한글을 혼자서도 손쉽게 익숙한 도구를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세요. 윤수란

- 한국 내 학생들을 위해 세종대왕 및 한글에 대한 애국적 내용의 인형극, 뮤지컬 등 제작하여 각 학교 무료 순회공연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접근할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해 주세요. 윤수란
-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1.음성 인식 컴퓨터 2.한글 배우기 프로그램 3.한자 배우기 프로그램. 조병희

이주민, 새터민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한국어

- 국제결혼 이주민들 한국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가정의 행복은 한국어 교육에서부터
- 공교육 방과 후 교육활동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들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부·교육청 차원의 연수 마련·교과교재 및 교구 개발을 부탁드립니다. 국어교사 박애선
- 새터민 학생들을 위한 표준어 교육, 남북한 언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서지은

대외 한국어 정책 및 보급

- 한국어 교육을 외국에서 더욱 강화하시기를 정병남
- 우리글을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성배
- 문화 한국어, 한국어의 세계화를 이루어 주세요 김정희
- 한국어를 세계 공용어로! 나가자! 세계일보 김민식
- 문자 없는 민족에게 한글을 문자로
- 한글을 전 세계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준
- 해외 한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십시오. 정부 차원에서 어려우면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주십시오.

- 한국어를 유엔의 공용어로 채택하도록 국제한국어 활동에 나서자 오상현
- 국어의 영토를 넓히자. 최동성
- 나눔의 국어 제언. 전 세계 한국어 교육원 개설로 전 세계 한국어 공용화가 되도록 합시다. 포항오천고등학교 안상철
- 세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글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합니다. 동아대학교 임지아
- 현지인 대상의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이영철
- 뉴스를 보니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선생님이 없어 못 배우는 나라들이 많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투자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철민
- 한글이 세계화되어야 한국이 세계화된다. 우리글을 잘 가꾸어 외국으로 보내자. 박이정출판사 박찬익
- 해외 동포에게 사랑의 '책'을 보냅니다. 한국인으로 정체성과 정통성을 기르는 길입니다. 손성우
- 해외동포 교육에 대해 한 마디 -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국어 학교의 확대 설립이 필요하고 한국어 담당 교사들의 지위 보장이 절실하다. 정규학교로서 그 나라 학력 인정 이 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윤수란
- 제3세계에 나랏말을 수출합시다. 특히 아프리카에. 장병하
- 세계 곳곳에 한글학교와 한국어학교를 운영하여 한글의 저변 확대 교환교수 활용.
- 한국어 발전 한국어 해외 보급 종합계획을 세우고 강력한 추진기관을 만들고 영어 침투 막아주세요. 이대로
- 한글을 사랑하는 그대의 모습에 항상 존경스럽습니다. 나도 우수한 한글을 사랑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죠. 한글수출, 대한민국!
- 한국어의 위상이 동남아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류와 한국어 보급을 잘 연결시켜 주세요. 김영아

국어(한국어)의 홍보 필요

- 어문정책 및 사전편찬에 대해 국어원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경혜
- 한글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세요. 윤정의

제12 나무

- 전 세계에 한글·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알리기; 노래창작, 영화제작
- 인터넷 시대에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려주세요. 김형욱
- 세계어 속의 위대한 한국어! 올바르게 쓰고 열심히 전파하여 그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요. 윤정아
- 텔레비전의 공영광고 등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친근하게, 늘 피부에 와 닿게 그것이 국민의 의식을 바꿀 것입니다.
- 각 나라 도서관에 춘향전, 홍길동 등 한글 고전 소설 보급하기, 국제공항 한글 디자인으로 꾸미기

한글(한국어)의 상품화

- 디자인 업체와 협력하여 한글문화 상품을 많이 개발하자.
- 세계를 다니다 보면 우리 한글만큼 멋진 문양이 없더라고요. 멋진 글꼴을 응용한 상품화로 한글의 세계화를 이끌어주세요. 박종욱
- 한글 옷이 아니라 한글을 조합한 아름다운 우리글, 이야기가 있는 옷과 장식물을 만드어요. 자음, 모음을 짝은 것 뿐 아니라 시나 문장 같은... 안동중학교 김명희
-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판매; 한지 공예와 접목, 각종 필기구, 공책, 수첩, 옷, 스카프, 넥타이, 구두, 액세서리 등.
- 많은 기업체에서 세계 시장에 내놓는 제품들에 한글이름을 붙이고 예쁜 한글 디자인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교사 주혜정
- 한글 디자인을 상업화하여 옷 등 생활용품에 접목, 친근함·소중함을 일깨우는 정책 필요. 유인철

영어 공용화에 대한 생각

- 영어 공교육! 말도 안 되는 소리 박종철
- 영어 공용화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어사랑, 나라사랑 김강훈
- 영어 상용화가 웬 말이냐! 국어를 사랑하자! 이병목

국어(한국어) 대한 나의 생각

- 언어가 통일되면 국토도 통일되고, 언어가 분열되면 국토도 분열된다. 한국소설협회 김동형
-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이도 품을 수 없다. 나답게 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생각하라. 우리말 사랑! 무주고등학교 김아영
- 한글은 언어가 아니다. 한글은 문화이며 한글은 우리의 열이다.
-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 국어사랑, 나라사랑 오광근
-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 우리 민족을 존속케 하는 우리말이 세계 속에 살아 숨쉬기를 그리고 한민족과 함께 영원하기를... 김승희
- 국어사랑, 나라사랑. 한미애
- 한글을 사랑해. 국어를 사랑해.
- 국어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황민정, 황진석
- 한글을 사랑합니다. 백은숙
- 2008년 건국 60주년을 맞아 삶의 국어, 창조의 국어, 나눔의 국어로 한국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랑하는 국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숙화
- 아름다운 우리말을 쓰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를 자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우리의 한글 자손만대에 영원히 빛나리! 류재기
- 우리의 아름다운 말과 글을 우리 스스로 다듬어 후대에 전달하였으면 합니다. 전주대학교 박정미
- 현수와 윤수야, 국어를 사랑하자! 경진이가
- 한국어가 세계의 중심에 서도록 국민 모두가 애쓰시다. 박종훈
- 세계인과 한국어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이며, 특권이다. 나누어도 고갈하지 않고 오히려 창조력이 샘솟아 우리의 삶의 언어로 굳건해질 것이다. 이미혜
- 말은 생명이자 호흡입니다. 국어생활연구원 김희진
- 5살에 한글 뎀 우리 아기 정말 쉬운 한글!

- 여러 가지 사연도 많고 말도 많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전국에서 처음 모였다는 데 의미를 담아 국어를 선택했던 첫 마음으로, 진정 국어를 사랑하자.
- 한국어 보급에 애쓰겠습니다. 한국어 교사
- 나 미국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 할래요. 김영두
- 우리말은 우리의 생명이다. 더 이상 소중한 것은 없다. 충북 한송초등학교 이정도
- 올바른 한글을 사용합시다. 한국인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고유리
- 한글 사랑 실천을 해요. 박종호
- 나의 모국어-한국어 너의 아픔까지도 사랑해! 김승희
- 국어를 지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동두천외고 손지훈
- 귀한 우리말, 우리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세계도 '한국어'에 주목할 것입니다.
- 국어는 그 나라의 엄마다. 국어를 사랑하자. 오동춘
- 우리글 우리말 국어를 사랑합시다. 이찬원
- 한국어 사용자 전 세계 1억 명 되는 날까지... 정주영
- 마음으로 눈으로 가슴으로 늘 함께하는 한글
- 한국어가 전 세계로 비상할 날을 기대합니다.
- 한글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함께 나누어요. 한글을 사랑합시다. 정음고등학교 정효진
- 중국 사람들도 한자를 다 모른다고 합니다. 일천 개도 모른 채 말을 하며 사는 중국인들의 문맹률은 아주 높다고 하지요. 그래서 한글이 더 위대하게 생각됩니다. 쉽고 과학적인 한글! 세계 공용어가 되는 그날까지... 원주고등학교 황혜자
- 한국어는 우리의 얼, 우리의 영혼 윤원일
- 아름다운 우리글과 말 아름다움 그대로 보존 계승시켜요. 해란
- 국어! 사랑합니다. 허나 국어보다 외국어 능력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마음을 지키기 힘든 건 아니죠? 박지현
- 아름다운 국어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 박성태
- 이제 한국어가 세계 곳곳에서 모든 사람과 함께하기를

- 우리말 우리글을 사랑합니다. 박희준
- 나라사랑의 기본이 우리글·우리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최은진
- 오늘부터 큰 시작입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원장 육효창
- 한국어 나무 더 크고 건강하게 키웁시다. 송명숙
- 인터넷에 예쁜 순수 토박이말을 많이 유포시킵시다. 국어교사 주혜정
-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박민우
- 한국어 세계화는 우리가 우리말을 사랑하는 그 순간 벌써 우리 앞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희대학교 탁진영
- 우리말과 글을 쓸 수 없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조상이 있었음을 잊지 맙시다.
- 한국어가 세상의 중심이 될 때까지.
- 국어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구지민
- 국어교육과 영어교육 사이에는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아름다운 국어의 발전을 위해 다른 언어의 장점도 우리말 속에 품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재민
- 정말 곱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한국어가 이 나무처럼 세상으로 뻗어가길 바랍니다.
-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 속에 우리 민족의 얼과 힘을 담아 세계 곳곳으로 퍼지기를 상명대학교 대학원 이수빈
- 한국어의 꽃이 되어 세계로... 말 꽃의 세계화를 기원합니다. 한국외대 임형재
- '한국어'라는 씨앗이 전 세계에 아름답게 꽃 피울 그 날까지! 권재욱
- 미디어시대를 맞아 신세대어를 이해하는 구세대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박숙화
- 우리말 사랑으로 우리 얼을 지키자 박정희
- 한글의 세계화가 한국의 세계화다. 김도윤
- 한글을 국제 문자로...

정부 및 국립국어원에게

- 바른 국어생활을 선도하는 국어원이 되시길... 김수정

제10회 나무

- 한글 사랑의 계기가 되어서 아주 좋았어요. 널리 알릴게요.
- 국어교육과정 청문회 등을 통해 현재 국어교육과정을 각계 국어 전문가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검토하고 개선하고 제안하는 사업,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사회 적 합의가 필요함. 오늘 국어사랑 큰 잔치 행사를 마련한 주최 측이 나서면 좋겠습니다.
- 국어 사랑 큰 잔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깊고 넓게 하는 계기가 되길! 대구성서고등학교 장제희
- 돈 많이 드는 일회성 행사보다 늘 우리말 사랑에 고민과 실천이 함께했으면 합니다. 하늘
-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한글 사랑으로 하나 뭉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미경
- 이번 '국어 사랑 큰 잔치'는 큰 의미를 가진 문화예술 정책의 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 내년 행사를 하신다면, 초등학교에서 한글교육이 중요하니까 초등학교 교사들도 교육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언젠가부터 외국어를 사용하는 자가 유식하다는 감정을 가진다. 1회성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자. 한국우진학교 강성중
- 뜻 깊은 행사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종대왕 만세! 주시경 선생 만세! 성지혜
- '실천'으로 열매 맺는 국어 사랑 큰 잔치가 되길 바랍니다. 정희원
- 우리말과 우리글을 사랑하는 것은 비단, '국어 관련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이런 행사나 연수 등에 다른 교과 선생님들과 기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참여하게 해주세요. 영서고등학교 김성옥
- 국어 사랑 큰 잔치의 개막을 축하합니다. 삶, 창조, 나눔의 국어를 실현시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듭시다. 김창주
- 국어 사랑 큰 잔치가 있어 흐뭇한 날입니다. 국어는 국어다워야 한다는 것이 제 철학입니다. 한국소설가 협회 이사 노수민
- 영어에 처참하게 파묻히고 밀려가는 위기의 국어를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삼시다. 영어교육 지금 이 추세로 가다가는 분명 영어로 국어를 가르치는 그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한글학회 정신 차리십시오!
- 영어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정부는 각성하라! 김미숙

- 해방 후 처음 치러지는 국어과 행사라 의미가 큼니다. 남의 나라말인 '영어'가 판치는 나라의 국어 교사는 우울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행사가 불씨가 되어 살아나기를... 포항동해중학교 김경숙
-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정책과를 설립해라!
- 종로 한복판에 '한글 박물관'을 만들어 주세요. 한글관련 정부단체를 속히 만들어 주세요. 국어교사 주혜정
- 국어 사랑 큰 잔치 참 고맙습니다. 대전이문고등학교 곽문숙



참가기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중학교 교사 이재인

서울신문 기자 이경우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석사과정 탁진영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책임연구원 김태훈

충청북도 단양군 단성중학교 교사 이재인

7월 중순경 교육청 공문을 통하여 건국 60주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국어 사랑 큰 잔치'를 마련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잔치에 과연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반으로 섞어 이메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얼마 후 반가운 소식이 메일함에 쟁그럽게 달려와 있었다.

기쁜 마음에 아침 일찍 고속버스로 동서울에 도착, 지하철을 타고 홍제역에 내린 시간이 11시 30분. 간간이 내리는 비를 헤치고 호텔 정문에 다다라 우산을 접으며 호텔 안으로 들어가니 진행 요원이 친절하게 등록대로 안내를 한다. 등록 후 주최 측에서 주는 책자가 방을 들고 점심 식사를 하는 레스토랑으로 갔다. 그곳에서 식사 후 호텔 프론트에서 체크인한 뒤 키를 받아 호텔방으로 가서 가지고 있던 짐을 풀었다.

13시부터 개막식을 한다는 안내를 받은 터라 좀 시간이 있어 잠시 쉰 뒤 개막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랜드 볼룸으로 향하였다. 넓은 방에 멋들어진 글씨가 한껏 뿔을 내며 전면에서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국어 사랑 큰 잔치'라 쓰인 행사장 전면의 행사 자막과 웅장한 행사장의 준비된 모습으로 과연 이 행사가 매우 큰 잔치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2분과 12분임에 편성된 나는 2분과 좌석 옆에 앉아 개막식 행사에 참여하였다. 잠시 후 많은 사람들이 행사장에 들어섰고, 국민의례에 이어 이상규 국립국어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내빈의 축사가 있었다. 원장님의 말씀이 건국 60주년을 맞아 지난 시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 국어 정책의 방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이런 뜻 깊은 소중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개막식 행사에 이어 '민족과 언어'라는 주제로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재산인 국어와 한글에 대한 서울대학교 권영민 교수의 초청 강연을 들었다. '한국어의 현실과 새로운 전망'이라는 부제를 붙여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시면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모든 백성들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우리 민족이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내용의 의미심장한 강연을 하였다.

세상은 변하여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세계화는 우리 한국어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게 하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과거 우리 민족이 한자를 수용하여 우리 언어를 더욱 풍부하고 논리적으로 하였듯이, 이 시대에 성행하고 있는 영어도 우리가 슬기롭게 우리 언어 속에

포용하여 우리 한국어가 세계어로 우뚝 서게 하는 책임이 우리 국어를 가르치고 국어를 알고 쓰는 이들에게 주어졌다고 하였다.

맞는 말씀이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국어인들은 이제 우리 국어만을 옹호하는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우리말도 세계어로 서게 하려는 폭넓은 개방적 인식으로 우리말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동감한다.

나는 이 순간 퍼뜩 이런 생각도 하였다. 과거 500여 년 전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시고 동국정운을 편찬하시면서 우리 한자음을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바꾸시려던 노력을 당시의 모든 학자들이 개방적으로 생각하여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 미친 것이다. 만약 그런 생각을 그 때 했더라면, 아마도 한자어를 사용하는 우리는 그 원음을 그대로 배워 오늘날 중국인들과 보다 쉽게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말이다. 앞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뜻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다.

또, 내가 과거 학생들을 인솔하여 외국에 나가 홈스테이를 하면서 교환 프로그램을 하던 외국 학교 생각도 났다. 우리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가르치던 그 학교는 한국어 선생을 요구하였고 그래서 내가 방문을 했던 기억과, 우리말을 더욱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영어도 더 잘 해야 하겠다는 체험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권영민 교수의 강연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말을 더욱 멋지게 하기 위하여 폐쇄가 아닌 개방적 생각으로 우리말을 현대화하고 남의 장점을 더욱 수용하여 우리말을 세계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우리 국어인들이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였다.

초청 강연 후 오후 분임 토의가 있었다. 4개의 분과는 8개의 분임으로 구성되었고, 각 분과 2개의 분임들이 같은 주제로 분임 토의를 하였다. 1분과는 '민족문화와 국어 I', 2분과는 '민족문화와 국어 II', 3분과는 '문화 창조의 동력 국어', 4분과는 '세계 속의 한국어'라는 분과별 주제를 정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효과적 언어 능력 향상 방안부터 언어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방지 방안(외국인, 새터민, 장애인 등) 등 16개 분임 주제로 32분임별 토의가 진행되었다.

나는 2분과 12분임에 소속되어 컨벤션 센터 4층 컨벤션 홀에서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교에서의 국어 교육 방안'이라는 분임 주제로 토의하였다. 국어 사랑 선언문 초안은 대체로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분임 주제에 대하여는, 기억하건대 국어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활동이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입시라고 하는 부담 때문에 득점 위주의 교육으로 가는 것에 대해 비판적 의견들이 오갔다. 한 교수님은 자연스런 국어 사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우리도 학생들에게 어휘나 맞춤법 또는 표준어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 6, 7년간 반복적인 활동 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했다.

분임 토의가 끝나고 다시 그랜드 볼룸에 모여 분임토의를 정리하는 종합 토론이 있었다.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진지하게 각 분과별로 2명씩 발표자가 나와 자신이 속했던 분과의 토의 내용들을 종합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대체로 각 분과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였다. 각 분과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만한 역량을 가진 우리 국어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 우리 국어는 더욱 훌륭한 언어로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종합 토론 후 컨벤션 센터 4층 컨벤션 홀에서는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문화방송의 최현정 아나운서 사회로 환영 만찬이 있었다. 실내 악단 다스름과 전통 무용이 어우러진 공연, 국립국어원장님의 인사, 만찬에서의 국어 단체 대표 건배 제의, 자연스런 식사, 남상일의 한글 사랑 판소리, 북밴의 축하 공연, 다시 국립국어원장님의 마무리 인사와 나비야와 비보이의 달는 공연 등이 이어져 만찬장은 흥겨움을 더하면서 더욱 우리 국어인들의 자부심을 돋웠다.

하루가 바쁘고도 값진 시간이었다. 나는 잠자리에서 이런 보람된 국어인의 날도 있구나 하는 감개무량함을 다시 가슴에 머금고 잠들었다. 행복한 저녁이었다. 아마도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이셨으리라.

이튿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컨벤션 센터 1층에 모여 국어 사랑을 담은 문구로 도미노 쌓기를 하였다. 나는 국어 사랑이라고 글자를 만드는 판에서 일했다. 어떤 기자가 다가와 인터뷰를 하여 나는 우리말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일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로 답하였다. 노란색 바탕에 적색으로 국어라고 쓰니 탁 눈에 띄는 것이 보기 좋았다. 모든 참여자들이 작품을 완성하니 가히 볼 만하였다.

얼마 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복을 입고 나타났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한 얼굴로 나타난 그분은 도미노 출발 버튼을 눌렀다. 참으로 흥겨운 순간이었다.

다시 그랜드 볼룸에 모여 오늘의 최종 프로그램인 국어 사랑 선언문 선포식에 참여하였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소중한 선언문은 우리 국어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 시대의 우리 한국을 이끌어갈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모두가 기슭 벅차게 박수를 쳤다. 다스름의 전통 국악 공연도 조화를 이루었다.

선언문이 낭송된 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답사가 있었다. 우리 국어를 소중한 문화로 차근히 알차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공언은 내 마음에 몹시도 믿음직하고 흐뭇하게 들렸다. 내 자신 우리 국어를 더욱 소중하게 가꾸는 일에 무엇인가 일조를 하여야 하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장관과의 분과별 기념 촬영이 있은 후, 오던 날 점심 식사를 하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 내 평생에 국어로 인하여 이런 크고도 값진 행사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우리 국어를 위해 노력하는 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욱 큰 자부심으로 몽칠 수 있도록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본다. 아울러서 내 조국의 영원한 문화유산이자 우리 민족의 빛나는 발명품인 한글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어로 우뚝 서게 하여야 하겠다는 다짐도 해 본다.

세종대왕의 발명의 정신과 애민 정신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자랑만 하는 일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소중한 정신과 유산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일은 우리 후손이 할 일이다. 아니 우리 국어인들이 할 일이다.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모서리는 아름답게 다듬고 빛나는 면은 더욱 광택을 발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다시 한번 본 회의를 주관하신 국립국어원 관계관 모든 분들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도움 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 국어인 모든 분들에게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국어 사랑 큰 잔치'가 우리 국어를 삶의 국어, 창조의 국어, 나눔의 국어로 더욱 튼튼하게 하는 기폭제가 되어 '국어로 세상을 품는' 그날이 아름답게 다가오기를 바란다.

서울신문 기자 이경우

8월 22일, '국어 사랑 큰 잔치'가 열린 첫날. 촉촉했다. 일주일간의 여름휴가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사이 몸에 땀 또 다른 게으름이 아침부터 짓눌렸다. 거기다 보슬거리는 비는 문밖의 세계를 아득하게 만들어 갔다. 움직여지지 않았다. 결국 점심까지 집에서 해결하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집에서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까지는 40여 분.

500여 명이나 모인다고 들었다. 어떻게 '잔치'가 열릴지 궁금했다. 초청 강연과 분임토의, 종합토론만 3시간 30분 정도의 시간이 잡혀 있었다. 혹 토론회? 이름을 잘못 붙인 건 아닐까? 행사 팸플릿과 행사장 무대, 벽면에 '국어'와 '사랑', '큰 잔치'가 서로 다정한 듯 자리하고 있었다. 나만의 느낌이었을까. 그리 어울려 보이지 않았다. '국어 사랑'이라는 낯익은 풍경은 친근함보다는 상투적인 모습으로 비쳤다. '잔치'가 흥겹고 표면적이라면 '사랑'은 본질적으로 내밀하다. 행사 이름을 더 생각해 봐야 했던 거 아닌가 싶었다.

사람이나 사물, 사건이나 상황에 이름을 붙이고 부르는 일은 소통의 출발점이다. 상대와 나를 관계 짓는 일이다. 이름은 사실을 이해하는 창이고 진실을 안내하는 문이다. "○○씨인가요? 국어 사랑 큰 잔치 참석하시는 거죠?" "네." 행사 안내를 위한 전화였다. 묻는 이는 나이가 어렸고, 답한 이는 많았다. 묻는 이는 상대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대강 알았다. 친절하게 안내하려고 했지만 상대는 이미 기분을 상해 버렸다. 뒷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붙이는 '씨'는 대접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랫사람이 뒷사람에게 '씨'를 붙이면 결례가 된다. 몰랐던 것 같다. 내가 속한 분임조 토론 주제가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었는데, 이것이 거창하고 막막해 보인 주제로 벌인 토론에서 첫 번째로 나온 이야기였다. '씨'가 높이는 말로만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 이야기를 꺼낸 선생님은 한 말씀 했고, 다음에 걸려온 전화에서는 '씨' 대신 '님'을 붙였단다. 그럼에도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았다고 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이 필요하다고들 했다. 이구동성으로 학교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학교에서 독서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다 같이 공감했다. 진단은 쉽게 이뤄졌는데 해결방법은 찾기 어려웠다. 국어교육이 국어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입시

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 그럼에도 선생님들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언론을 이용한 홍보에도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속이 찢끔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언론은 우리말 표현에 꾸준히 모범을 보여야 했다.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데도 앞장서야 했다.

일상에서 성인 남자는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불릴까. 아저씨? 선생님? 사장님? 대개 이 중에서 선택된다. 한데 때로 선생님은 과해서 어색할 때가 있고, 사장님은 사장도 아닌데 그리 불려서 낯설다. 아저씨는 때로 불쾌하게까지 한다. 옆집 어린이가 부를 때만 그런대로 정겹다. 얼마 전 신문사로 한 여성이 들어왔다. 그분이 입구에 있는 한 선배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 선배는 순간 움찔했다. 그리고 물음에 친절하게 답하지 않았다. 그 여성은 잠시 후 '아저씨'가 어째서 그렇게 나오냐며 따지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경찰이 출동했다.

'아저씨' 말고 달리 부를 말이 필요해졌다. 지금은 개인과 개인이 대등하게 부딪치는 일이 많은 시대다. 상대를 불려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경어법이 발달한 우리말 체계에선 어떻게 불려야 할지 어려울 때가 적지 않다. 높이기도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무난한 말. 이런 것에 대한 공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욱 소통되고 갈등이 풀리도록 해야 한다. 언어는 언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였다.

언젠가 집안 모임에서 호칭 때문에 고민했던 기억이 있다. 아버지는 사촌 남자형제들이 많다. 난 그들에게 아저씨라고 친근하게 부른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내 아들이 내 사촌 남자형제들에게 아저씨라고 부를 때는 꼭 옆집 아저씨 부르는 것 같았다. 결국 삼촌이 됐고 아저씨보다 가까워졌다. 어문규범, 어휘 능력뿐만 아니라 호칭어의 중요성도 커 보인다. 국어원이든 언론이든 꾸준한 논의와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국어 사랑 큰 잔치'가 끝나고 이틀쯤 뒤 국어원에서 전자우편이 왔다. 이상규 원장의

인사말이 적혀 있었다. “우리 앞에는 국민들의 국어 능력 향상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국어 사랑 큰 잔치’의 목적은 이것이었던 것 같다. 삶의 국어, 창조의 국어, 나눔의 국어라는 구호에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국어 능력이 더 올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국어 능력은 결국 소통 능력이다. 잘 듣고 잘 전달하기. 행사를 치르면서도 계속 나온 이야기였지만 언론의 역할이 커 보인다. 말은 누군가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한 언어공동체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매체는 신문과 방송이다. 이들은 제대로 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도, 사회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도 올바른 본보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얼마나 절실히 인식하고 투자하는지는 모르겠다.

첫날 초청 강연에서 서울대 권영민 교수가 말했다. “개화계몽시대 국문의 확대는 한문 중심의 폐쇄적인 문화공간으로부터 소외되었던 민중의 언어생활을 근대적인 문자생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커다란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국문 글쓰기의 사회적 확대는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이끈 정신적 역량이 됐습니다.”

다시 폐쇄적인 공간이 생기는 일은 없을까? 지나친 영어 중시는 경향은 이와 멀지 않아 보인다. 신문에서 한자는 거의 사라졌다. 이제 그 자리에 로마자가 들어오고 영어가 밀려든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져다 쓴다. 한글로 영어를 쓰기도 하고, 로마자로 그대로 영어를 쓰기도 한다. 속내는 그것이 더 폼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잘 통한다면 모르겠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뭐라고 읽어야 할지 알 수 없는 문자도, 뜻이 잘 통하지 않는 표현도 늘어간다. 그러면서 남녀를 차별하고 지역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권위를 조장하기도 한다. 미디어 언어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비판, 비평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국어 사랑 큰 잔치’에서 나온 선언은 우리 사회의 요구였다.

“우리는 다짐한다. 우리는 국어에 담긴 가치를 소중히 하면서 국어를 더욱 같고 닳아 다 음 세대에 전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글이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고 새

로운 문화와 지식의 창조적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우리는 국어가 열린 소통의 언어로서 세계 언어문화의 공존과 상호 발전에 기여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국어 사랑 큰 잔치 참석자들만의 선언이 아니었다. 미디어의 가장 소중한 도구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우리말 한국어는 자유스러워야 하지만 동시에 엄격하게,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하는 도구이고 가꾸어 나가야 하는 문화다. 언론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을까.

첫날 공연이 끝난 뒤 밤늦게 교열기자들끼리 모였다. 자연스럽게 호텔 앞 호프집으로 가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몇 잔 술이 돌면서 목소리는 더 높아졌다. 여기에 한글문화연대 일부 운영위원들이 가세했다. 좀 희미해졌지만 힘을 합쳐 보자는 것이었지 싶다.

첫날 밤늦게까지, 둘째 날 아침 일찍부터 행사가 끝나는 순간까지 연구실이 아닌 행사장에서 몸으로 뛰어다니며 맞아준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을 비롯해 여러 연구원, 직원들께 감사드린다. 국어, 우리말, 한국어라는 이름으로 뜻을 함께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다.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석사과정 **탁진영****감격적인 만남**

국어, 한국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수 백 명에 달하는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넘쳐날 정도였더니 앞으로 우리 국어의, 한국어의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참석자 모두 새삼 '나'와 함께 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나'의 고민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여서 행복하고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어 분야 연구자 및 종사자들의 참가는 저에겐 더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큰 잔치의 의의와 소망

분명히 이번 행사는 규모를 보나, 참석자들의 열의를 보나, 높게 평가할 만한 행사였습니다. 특별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도 참석하셔서 관심을 표해주셨고 격려와 응원을 해주셨다는 것이 대외적으로는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임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려 우리 국어, 한국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 번 토론의 장

이번 행사에서 무엇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분과별 주제발표와 분임토의를 거쳐 종합토론이었죠. 여러 주제에 대해 각 분과별 분임별 실제적인 토론을 벌였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간단한 주제는 아니었지만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이 참석자 모두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4분과의 30분임 또한 현 대학교수님들을 포함해 현직 국어 교사 분들, 저와 같은 학생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문화시대 한국어교육이 나아갈 길'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문화시대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제기를 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및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을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장이 마련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흥겨운 만찬의 시간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연회장과 여러 문화 공연은 첫날 행사 일정에 다소 지쳐 있는 참석자들에게 흥겨운 시간이었고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을 갓만 갓았던 선생님들도 무대 위 공연을 보는 동안만큼은 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의 참석자들 못지않은 열렬한 환호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청자들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대행사와 주최 측의 엇갈린 통보가 참석자들에게 혼동을 주어 참석을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차기 행사 때에는 행사를 진행하는 관계기관 및 실무진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사 첫날에 많은 비로 시간에 맞춰 도착하지 못한 분들도 많았고, 워낙 인원이 많다보니 예정대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등록 및 호텔 체크인 과정에서 날씨에 대비한 대중교통 안내 및 공지 등을 조금만 보완 했더라면 비교적 지연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호텔 체크인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등록과 동시에 체크인을 했든지 혹 그게 불가능하다면 단체로 체크인을 처리했다든지, 행사 참석자들을 위해 따로 체크인 라인을 분리했다면 호텔 측이나 참석자들이나 양측 모두 불편이 좀 덜했을 것입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책임연구원 김태훈

마지막으로 분임토의를 거쳐 종합토론에 이르는 과정은 이번 행사를 가장 내실 있게 해준 순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양한 주제가 있었던 만큼 참석자들이 속한 분과와 분임의 주제를 미리 알고 준비할 시간이 있었다면 좀 더 정돈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보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분과에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분과 배정이 이루어졌다면, 혹은 변경이 가능하도록 사전 공지가 되었다면 더욱 활기찬 토론장이 되었을 겁니다.

감사의 말씀

끝으로 이렇게 크고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한 주최 측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의 실무를 맡은 국립국어원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국어 사랑’, 국어국문학과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말이다. 당시 즐겨 쓰던 말은 ‘국어 사랑, 나라 사랑’이었다. 요즘은 세계화, 한류 등의 영향으로 우리말을 우리끼리 부르던 ‘국어’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나라 말과 구별하기 위한 ‘한국어’를 많이 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 사랑 큰 잔치’가 아닌 ‘국어 사랑 큰 잔치’가 열린다고 하니 그 이유를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참가했다.

행사 접수대에서 보니, 참가자 수가 몇 백 명이나 되는 듯 했다. ‘한국어’를 주제로 이렇게 큰 규모의 행사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그 큰 규모에 한번 놀랐고 진행되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짜임새 있는 행사 진행에 한 번 더 놀랐다. 행사에 참여해 보니, 별다른 의미가 있어서 ‘한국어’가 아닌 ‘국어’를 쓴 것은 아니었다.

큰 잔치 행사는 분임별 토론으로 시작되었는데, 토론 주제에 ‘국어의 세계화’,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방안’ 등도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속한 토론 모임의 참가자 대부분은 교수, 교사, 연구자였고 외국인도 몇 명 포함되어 있었다. 대부분 처음 만난 사이였음에도 간단한 자기소개만 마친 후에, 마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토론을 할 수 있었다. 아마도 ‘한국어’라는 주제에 대해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한국어를 연구하거나,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한국어를 배우는 등 각각 다른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한국어에 관심이 많고’, ‘한국어를 사랑하고’, ‘한국어를 걱정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경험도 이야기 하고, 발전 방향도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가자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전국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국어 사랑 선언문’ 선포식 후에 이어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의 축사 시간에 어느 청중이 이야기 했듯이 이렇게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는 처음이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학회의 활동이 일반 사회와 구별되어 있지만, 몇 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다. 지금처럼 학회지가 많지 않았던 것도 이유일지 모르나, 우리말에 대한 학자의 토론은 일반 잡지에 실렸고, 학자들이 지상 토론을 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학회의 활동이 일반 사회와 완전히 분리되었다. 학자들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 일반인은 고

사하고 교육자들도 잘 모르고, 학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언어 변화나 교육 현장에
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대해 잘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무척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아쉬웠던 점도 있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열심히 토론했는
데도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이다. 공통 관심사가 있었으므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었지만, 각자가 할 말도 많고 서로 물어볼 말
도 많았을 터인데 주어진 토론 시간이 너무 짧았던 탓에 개인 의견을 충분히 나누기 어려
웠고, 같이 토론했던 사람들이 서로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상황
이 이렇다보니, 같이 한 모임에서 토론을 했지만 토론이 끝난 뒤에는 서로 서먹서먹하게
되어서 뽀뽀이 흩어지게 되었다. 분임 토론 후에 전체 토론과 저녁 식사 시간이 이어졌는데,
최소한 저녁 식사까지는 각 분임별로 식사하도록 진행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
다. 그랬다면 식사를 같이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교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또 분임 토론이나 전체 토론이 벌어진 행사장 주변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너무 빡빡한 일정 때문에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준비한 수고를 생각할 때, 너무 촘촘하게
짜여진 일정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다. 한글 관련 각종 책자,
물품도 전시되어 있었고, 전시물도 많이 있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목판 인쇄를 직접
해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직접 목판 인쇄도 해 보고, 그 결과물을 기념품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직접 해 보았는데, 처음 해보는 것이다 보니 아까운 종이만 몇 장
버려놓고 말았다.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 볼 수도 있고, 기념품도 된다는 점에
서 아주 좋았다. 평양에 있는 박물관에서 설명을 하던 안내원이 전시된 옛 악기로 연주해
음악을 들려 줘서 관람객 모두 놀랐던 기억이 난다. 눈으로만 즐기는 것보다는 오감을 모
두 동원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었던 도미노도 좋았다. 도미노
를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었던 탓에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다 함께 만들면서 즐기고, 중간에 도미노가 끊기더라도 그 자체로 재미가 있었다. 은근과
끈기를 넘어, '썸'이라는 글자를 끝끝내 완성하고 싶어 했던 어느 참가자는 그 뜻을 결국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끊임없는 노력과 완성을 위한 집착

이 아닐까 생각한다.

한국어를 세계 속의 언어로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일도 아닌 것이다. 우리의 언어를 우리가 쓰기에 편리하게 잘 발전시키고, 외국인이 쓰기
에도 편리하게 잘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의 언어인 한국어 세계 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가 우리끼리 사용하면 되는 언
어로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끼리 배우고 익혀 쓰면 되는 언
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외국인에게도 가르쳐야 하고, 또 한국어를 배운 외
국인이 다른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한국어를 다듬어야 할 상황인 것이
다. 이런 방향의 발전을 위해서는 표준화를 위해 모국어 화자인 우리들에게 이미 익숙한
것까지도 바꿔야 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만 편하게 잘 쓰면 되는 것'에서 '남도
나만큼 편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내가 불편함을 좀 감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고 초대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님 및 이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님 및 이하 관계자 여러분, 특히 행사 준비 실무를
맡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뒤돌아 보며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 회장 남영신

전국국어교사모임 사무총장 안용순

전국 국어문화원 연합회 회장 남영신

1. 총평

국어인이 한 자리에 모여 담론을 벌이고 다양한 친목 행사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던 차에 이 기회가 정말 뜻밖에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에 기쁨과 함께 당혹감을 느꼈다. 국어를 주제로 이런 큰 잔치를 처음 한 탓으로 여러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무척 의미 있는 행사였다. 특히 국어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던 단체들이 함께 한자리에서 국어를 논하고 즐겁게 이야기를 꽃피운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어서 무척 유쾌한 잔치였다고 생각한다. 이 행사로 인해서 국립국어원과 국어인들의 역량이 한층 커졌으리라 생각한다.

2. 잔치 기획

국어 발전을 위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서로 나누면서 국어인이 소통하는 행사로 방향을 잡은 것은 좋았다. 토론을 심각하게 하더라도 함께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국어라는 주제로 고민하는 우리들의 공통점일 것이기 때문이다. 참가자의 직업과 나이를 더 다양하게 하고, 일정을 2박 3일 정도로 더 넉넉하게 잡았더라면(비용에 문제가 없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아쉬운 것은 국어인이 국어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이루어 가는 이벤트를 마련하지 못한 점이다. 레고 쌓기는 일반인의 놀이 이벤트는 될 수 있겠지만 국어와 아무 관련이 없어서 무의미하였고, 특히 쌓아 놓은 것을 허무는 이벤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다.(테극기 모양과 '국어 사랑' 글자를 써 놓고 그것을 허물면서 박수를 치는 장면이 이 잔치의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다.)

3. 분임 토의

이 잔치에서 가장 돋보인 행사였다. 전혀 얼굴을 모르던 사람들이 특정 주제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토해 내어 결론을 이끌어 가도록 만든 방식도 매우 신선했다. 특히 각 분임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무작위로 배정해 둔 것이 매우 좋았다. 다만, 미리 주제를 알려주지 않고 당일 이를 통보한 것이 아쉬웠고, 토론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흠이었다. 많은 결론을 얻지 못하더라도 좀 차분하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4. 만찬과 음악 감상

잔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국가가 국어인을 위해서 이런 정도의 잔치는 베풀어도 괜찮겠다는 생각과 함께 국가의 고마움을 느끼게 한 자리였다. 실내에서 하는 것도 좋고 가을이라면 야외에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5. 선언문 낭독

국어인의 뜻을 모아 국어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로 선언문을 낭독한 것도 좋은 착상이었다. 다만 국어인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너무 허술해서 아쉬웠다. 선언문 낭독 뒤에 유인촌 장관이 한 축사는 매우 좋았다. 평소에 국어를 사랑하고 국어 발전을 위해서 뭔가 고민한 흔적이 전달되는 축사였다.

6. 국어 원로와 장관의 대화

장관이 국어 원로와 대화를 나눈 것도 꽤 유익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홈페이지가 영문 입력 모드로 되어 있는 점이 지적되었는데 행사 후 곧바로 한글 입력 모드로 고쳐 놓은 것을 보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신속한 조치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7. 전시

행사장 주위에 국어 관련 자료를 전시해 놓았는데 이 기획도 산뜻했다.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자료를 더 정리된 모습으로 정리해 놓았더라면 좋았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장소가 좁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8. 맺음

오찬장에서 유인촌 장관은 이 행사를 매년 이런 규모로 할 수는 없지만 규모를 줄이더라도 한글 날 행사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매년 열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국어 관련 정책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장관에게 국어 정책과 관련하여 허심탄회하게 질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마련된 것은 무척 기쁜 일이었다. 국립국어원이 문화관광부와 함께 이 잔치를 잘 지속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뒤돌아 보며

전국국어교사모임 사무총장 안용순

행사장에서 처음 마주친 사람 두 사람. 회갑은 훨씬 넘기신 듯한 분과 중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 이 큰 행사장에 혼자서 발을 들여놓은 터라 행사장이 어딘지 찾고 있었는데 그 두 분은 방금 분임토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던 것이었다. 분임토의에서 어떤 것을 다루었는지 짐작은 가지만 충분히 분위기는 고조되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김수업 선생님의 연배의 그 분을 다음 날 식사 시간에 뵈고 들은 것으로) 그 분은 미국에서 한글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국에 홍보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것이라 하셨다. 당신의 그 일에 대한 자긍심도 대단했다. 오랫동안 한글 관련 일을 해 오신 듯 했다.

분임토의 결과 발표에서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제안이 있었다. 그것은 인천국제공항을 '세종국제공항'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세종대왕'에 대한 관심이 드라마 '세종대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첫발을 딛는 외국인에게 '세종'은 충분히 그 의미를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케네디공항' 이상으로 우리 민족의 언어와 문화, 소통의 핵심에 있는 '세종'이라는 이름을 국제공항 앞에 내세운다는 것은 한글날을 기념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다. 여러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다고는 하지만 이 제안은 그만큼 '국어사랑큰잔치'에 격이 맞는 신선한 제안이라고 생각했다.

저녁 시간에는 오랜만에 대학 후배들을 만났다. 대학이라는 한 울타리에서 같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지만 꽤 오랫동안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서로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내 자신이 그동안 얼마만큼 국어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는지 깨달았다. 학생들과의 소통을 제 1순위로 내세우긴 했지만 늘 병행해야했던 것이 국어교육이었다. 그러나 스스로 게을렀던 탓이다. 후배는 '조경란' 작가를 화두로 던졌다. 이편에는 내놓을 것이 없더라. 현장에서 논술교육한다는 핑계로 박노자, 한홍구, 홍세화씨의 책들을 읽어오던 터라 대학 때 시와 소설을 공부하던 그 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그래야만 할 것 같다는 다짐이 섰었다.

아무래도 '국어 사랑 큰 잔치'라는 행사가 주는 개인적인 의미는 이러한 측면에 있다. 첫째, 국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진지하고 뜨거운 모습을 확인하고, 둘째,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어가 사랑받을 수 있는 노력을 다짐하는 계기이고, 마지막으로 국어교육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자극을 받고 힘을 얻어 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 경기국어교사모임에서 주관하는 2008 열정문학강좌를 신청했다. 이성부, 나희덕, 황동규, 고은, 황지우 시인을 직접 만나고 5주에 걸쳐 15시간 동안 그 분들의 시와 삶과 문학 이야기를 들었다. 현장에서 교과서와 문제집만을 갖고 시를 가르치던 답답함을 훌훌 털어내고 진정으로 시와 문학과 삶이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연수였다. '국어사랑'의 주체들은 물론 우리나라 사람 모두일 테지만 무엇보다 현장의 국어교사들에게 있어서 국어사랑은 꾸준히 우리말을 가꾸고 교육에 적용시킬 수 있는 고민을 스스로가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호텔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잠자리를 제공받았던 것은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이런 물리적 호사가 낯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낯설을 뒤로하고라도 스스로가 국어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국어'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공부하고 가르쳐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 것에 대해 이번 행사에 감사한다.





감사의 글

국어 사랑 큰 잔치를 마무리하면서

한 나라의 문화 역량은 국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국어 사용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국 이래로 처음 국어 관계자들이 모여 국어의 앞날을 설계하는 국어 사랑 큰 잔치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제 강점기 모국어의 학습 기회를 박탈당하고 또 창씨를 강요받았던 어둡고 가파른 역사의 노정에서 국어를 지키고자 했던 선배들의 숭고한 노력으로 이젠 국어 기반이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해진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국민들의 국어 능력 향상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말과 글을 세계 속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대를 향해 우리 국어 관련 종사자들은 더욱 노력해야 하리라 봅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국어 사랑 큰 잔치 행사가 건국 60주년을 회고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아름다운 추억의 장으로 영원히 간직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국어 사랑 큰 잔치에서 수렴된 의견은 <국어 사랑 선언문>에 담겼습니다. 앞으로 이 선언문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행사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8년 8월 27일
국립국어원 원장 이상규 드림

관례 기사

보도 자료

언론 보도

국어로 세상을 품다

국어 사랑 큰 잔치 개최

국어 종사자 500여 명 한 자리에 모여 국어 발전 논의

건국 60주년 기념 국어의 과거를 돌아보고 앞날의 국어 정책 방향을 내다보는 ‘국어 사랑 큰 잔치’가 8월 22일, 23일 양일간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국립국어원 주관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언론인, 문인, 교사, 학자, 출판인 등 국어 관련직 종사자 5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여 국어 발전을 논의하는 최초의 모임이다.

‘국어로 세상을 품다’를 주제로 삼고 ‘삶의 국어’, ‘나눔의 국어’, ‘창조의 국어’를 구호로 내건 이번 행사는 22일(금) 개막식을 시작으로 ▲서울대 권영민 교수의 초청강연 ▲분임 토론과 종합 토론 ▲환영만찬이 이어지고, 23일(토) ▲한글 도미노 쌓기 ▲국어 사랑 선포식 등의 내용으로 꾸며진다.

특히 분임 토론은 500여 명의 참석자가 3개의 분과로 나뉘어 <삶의 국어 - 민족문화와 국어>, <나눔의 국어 - 세계 속의 한국어>, <창조의 국어 - 문화창조의 동력>을 주제로 각각 토론을 펼치게 된다.

분임 토론 결과는 종합 토론을 거쳐 ‘국어 사랑 선언문’으로 완성되며, 행사 마지막의 ‘국어 사랑 선포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보인다.

국립국어원 이상규 원장은 이번 행사와 관련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어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국어의 가치를 확인하고 국어가 더욱 풍요롭고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바탕이 되도록 다짐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23일 ‘국어 사랑 선포식’에서 발표할 선언문의 내용에는 ▲국어 사랑을 실천하고 교육하며 한글을 통해 전통 문화를 보전하고 세계 문화를 가치롭게 활용하며 ▲한국어 세계화 및 한글 진흥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장애인, 새터민 등 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어 사랑 선포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문화계 인사들도 참석한다. (끝)

1. 방송(텔레비전 및 라디오)

번호	일시	방송국	프로그램	기사제목
1	8.22 21:35	EBS	EBS 뉴스	한글 세계화-‘국어 사랑 큰 잔치’ 이상규 국립국어원 원장 인터뷰
2	8.28 ~ 29 (3회 방영 예정)	YTN	YTN <글로벌 코리아>	국어 사랑 큰 잔치 행사 소개 유인촌 장관 및 이상규 국립국어원 원장 인터뷰
3	8.22 22:00	KTV	KTV <정책 오늘>	국어의 발전방향은? 국어 사랑 큰 잔치 이상규 국립국어원 원장 인터뷰
4	8.19 17:20	CBS	CBS라디오(뉴스시사) <사랑방손님과 장미화>	국어 사랑 큰 잔치 내용 및 의의 이상규 국립국어원 원장 인터뷰
5	8.22 11:35	TBS	TBS(교통방송) <서울n문화>	국어 사랑 큰 잔치 내용 및 의의 이상규 국립국어원 원장 인터뷰
6	8.23 15:35	KBS	KBS 제1라디오 <생방송 토/일요일 아침예입니다>	국어 사랑 큰 잔치 내용 및 의의 이상규 국립국어원 원장 인터뷰
7	8.22 17:10	연합뉴스	연합뉴스 TV	국어로 세상을 품다 ‘국어 사랑 큰 잔치’
8	8.23 19:12	연합뉴스	연합뉴스 TV	‘국어 사랑 큰 잔치’ 폐막
9	8.22 17:30	동아일보	동아eTV	국어로 세상을 품다
10	8.22 16:40	세계일보	세계TV	국어로 세상을 품다-국어 사랑 큰 잔치

2. 신문(종합 일간지 및 경제지, 인터넷)

번호	일시	매체	영역	제목
1	08월 16일	서울경제	책과 세상	22~23일 ‘국어 사랑 큰 잔치’ 개최
2	08월 19일	조선일보	학술	학술소식
3	08월 19일	문화일보	학술	문인 등 500여명 국어발전 논의

번호	일시	매체	영역	제목
4	08월 19일	연합뉴스	온라인	국어 발전 논의 '국어 사랑 큰 잔치' 개최
5	08월 20일	서울신문	사람일사람	국어 앞날 모색 '국어 사랑 큰 잔치'
6	08월 22일	대한민국정책포털	정책정보	우리말의 과거·현재·미래... '국어 사랑 큰 잔치'
7	08월 22일	대한민국정책포털	정책정보	국어 사랑 큰 잔치 행사 개최 - 국어 관련직 종사자 500여 명 한자리에 모여 국어 발전 논의
8	08월 22일	동아일보	인물동정	국립국어원 원장(이상규) 국어 사랑 큰 잔치 개최
9	08월 22일	한국경제	인물	국립국어원 원장(이상규) 국어 사랑 큰 잔치 개최
10	08월 22일	메디칼투데이	사회	국어의 어제 오늘 미래..., 국어 사랑 큰 잔치 개최
11	08월 22일	연합뉴스	속보	한국어도 세계화가 필요하다 국어 사랑 큰 잔치
12	08월 22일	뉴스와이어	문화	국어 관련 종사자 500여명 한자리에 모여 국어 발전 논의
13	08월 22일	주간한국	Culture & People	권영민 교수 등 국어 전문가 500여명 '국어 사랑 큰 잔치' 참가
14	08월 22일	아시아투데이	문화	국립국어원, '국어 사랑 큰 잔치' 개최
15	08월 22일	연합뉴스	사회종합	국어로 세상을 품다(포토1)
16	08월 22일	연합뉴스	사회종합	국어로 세상을 품다(포토2)
17	08월 22일	연합뉴스	사회종합	국어로 세상을 품다(포토3)
18	08월 22일	뉴스시	사회종합	인사말하는 이상규 국립국어원 원장(포토뉴스)
19	08월 22일	뉴스시	사회종합	국어 사랑 큰 잔치 참석한 이상규 원장(포토뉴스)

번호	일시	매체	영역	제목
20	08월 22일	뉴스시	사회종합	국어 사랑 큰 잔치 주제 상징하는 도미노(포토뉴스)
21	08월 22일	뉴스시	사회종합	도미노 퍼포먼스, 국어로 세상을 품다(포토뉴스)
22	08월 22일	뉴스시	사회종합	국립국어원, '국어 사랑 큰 잔치' 개최(포토뉴스)
23	08월 22일	뉴스시	사회종합	국어 사랑 마음을 담은 도미노 퍼포먼스(포토뉴스)
24	08월 22일	뉴스시	사회종합	국어 교재 둘러보는 '국어 사랑 큰 잔치' 참가자들(포토뉴스)
25	08월 22일	뉴스시	속보	국어로 세상을 품다-국어 사랑 큰 잔치
26	08월 23일	서울경제	사회	국어 사랑 동참을(포토)
27	08월 23일	경향신문	전국	국어로 세상을 품다(포토)
28	08월 23일	국민일보	종합2면	국어 사랑 한마음(포토)
29	08월 23일	서울신문	사회 톱	국어로 세상을 품다(포토)
30	08월 23일	영남일보	영남브리핑	[포토] 건국 60주...국어 사랑 큰 잔치
31	08월 23일	연합뉴스	문화종합	국어 사랑 큰 잔치(포토1)
32	08월 23일	연합뉴스	문화종합	국어 사랑 큰 잔치(포토2)
33	08월 23일	연합뉴스	문화종합	국어 사랑 큰 잔치(포토3)
34	08월 23일	뉴스시	문화종합	국어 사랑 큰 잔치(포토4)
35	08월 23일	뉴스시	사회종합	답사하는 유인촌 장관(포토)
36	08월 23일	뉴스시	사회종합	국어 사랑 큰 잔치에서 답사하는 유인촌 장관(포토)



참가자 명단

일반 참가자 명단 (가나다 순) 총 432명

강성종 (한국우진학교) 김명진 (한글문화연대) 김옥화 (한산중학교)
강성춘 (장성여자고등학교) 김명희 (신명중학교) 김용석 (경상대학교)
강소은 (제주여자중학교) 김명희 (안동중학교) 김윤희 (강서공업고등학교)
강승혜 (연세대학교) 김미경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김은미 (대전석교초등학교)
강신항 (성균관대학교) 김미숙 (통영여자고등학교) 김은숙 (하남고등학교)
강영봉 (제주대학교) 김미옥 (서울대학교) 김은애 (서울대학교)
강영은 (시인협회) 김민경 (한양대학교) 김은영 (한글문화연대)
강영주 (한국외국어대학교) 김민승 (이화여자대학교) 김의준 (국어문화운동본부)
강인석 (한국소설가협회) 김민옥 (충북대학교) 김인숙 ((주)산돌티움)
강지영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김민정 (중앙대학교) 김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강황구 (강북예술고등학교) 김민희 (서울고대부설초등학교) 김재윤 (소방방재청)
고경희 (한글문화연대) 김범수 (박문각) 김정미 (방어진중학교)
고유리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김병동 (전일간스포츠) 김정연 (화도진중학교)
고은미 (전주대학교) 김보리 (서울경제교열팀) 김주홍 (윤디자인연구소)
곽문숙 (대전이문고등학교) 김보일 (배문고등학교) 김지현 (시인협회)
구명수 (인천효성초등학교) 김서령 (소설가) 김지현 (해와나무)
구연상 (한국항공대학교) 김석준 (시인협회) 김진수 (고북중학교)
구현정 (상명대학교) 김선덕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김태림 (대전버드내초등학교)
구혜영 (국어문화원) 김선이 (청명고등학교) 김태운 (서울광남초등학교)
권기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선정 (계명대학교) 김태철 (한국디지털미디어)
권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선희 (성남여자중학교) 김하락 (국어문화원)
권영전 (두산동아) 김성욱 (영서고등학교) 김현전 (강동중학교)
권현임 (대전가양중학교) 김성조 (상명대학교) 김현정 (일산중학교)
김강출 (거제대학교) 김세환 (새한글연구가) 김형년 ((주)랭귀지플러스)
김경숙 (포항동해중학교) 김소라 (해와나무) 김형욱 (감사원)
김경열 (충북대학교) 김승현 (성보중학교) 김혜련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정은 (두산동아) 김승연 (상명대학교) 김혜정 (회룡중학교)
김대의 (네오싱크) 김승진 (유구중학교) 김홍섭 (대구소선여자중학교)
김덕규 (태안여자고등학교) 김승희 (인천효성초등학교) 김훈 (한국어문교육연구원)
김덕두 (동아일보) 김아영 (무주고등학교) 김희숙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김덕영 (한글학회) 김영두 (소설가) 김희진 (국어생활연구소)
김동영 (움직이는 말글문화) 김영명 (한글문화연대) 나삼일 (원광대학교)
김동형 (한국소설가협회) 김영아 (백영고등학교) 남기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김두년 (문경여자중학교) 김영자 (만경여자고등학교) 남기탁 (강원대학교)
김만식 (세계일보사) 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 남영신 (국어문화운동본부)
김명옥 (해와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김영한 (한국소설가협회) 남현경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노수민 (소설가) 박정기 (혜성여자중학교) 성환갑 (중앙대학교)
노영혜 (종이문화재단) 박정미 (전주대학교) 소희 (움직이는 말글문화)
노채환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종국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손명선 (서울당서초등학교)
노형남 (고려대학교) 박종욱 (감사원) 손병태 (경산교육청)
문지선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박종윤 (한국소설가협회) 손석우 (해와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문금순 (청도중앙초등학교) 박종현 (성안고등학교) 손성길 (풍동중학교)
문미라 (부인초등학교) 박종호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손앵화 (전주대학교)
문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주연 (뉴스메이커) 손지훈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민여금 (평원중학교) 박준택 (두산동아) 손진호 (동아일보)
민정혜 (학남중학교) 박진연 (광명고등학교) 손택수 (실천문학사)
민혜경 (경희대학교) 박찬용 (재미언론인) 송명숙 (원초초등학교)
박경주 (부영정보산업고등학교) 박창원 (이화여자대학교) 송명숙 (한경대 국제교육원)
박경혜 (연세대학교) 박충훈 (소설가) 송민 (국민대학교)
박광민 (한국어문화회) 박혜숙 (울산중앙고등학교) 송수경 (두산동아)
박규석 (한국언어문화연구원) 반재원 (훈민정음연구소) 송여주 (호평중학교)
박길수 (움직이는 말글문화) 반지연 (국민권익위원회) 송주연 (네오싱크)
박길제 (진성고등학교) 배동준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송춘길 (선산고등학교)
박남주 (움직이는 말글문화) 배은미 (동아일보) 송치순 (풍성중학교)
박동호 (경희대학교) 백경희 (수락고등학교) 송향근 (부산외국어대학교)
박병철 (백경희) 백금남 (움직이는 말글문화) 송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상규 (목동고등학교) 백기범 (연세대학교) 신병준 (삼괴중학교)
박석문 (백석대학교) 백두현 (경북대학교) 신승용 (영남대학교)
박석재 (중대부속고등학교) 백문식 (남양고등학교) 신승일 (서울디지털대학교)
박신양 (전주대학교) 백봉자 (경희대학교) 신인환 (연세대학교)
박성규 (장성중학교) 백봉현 (서울강현중학교) 신정애 (경희대학교)
박성용 (인주중학교) 백수진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신태일 (제주여자중학교)
박성태 (성균관대학교) 백은숙 (국어문화운동본부) 심보토모코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박세진 (이화여자대학교) 봉혜영 (인천부현초등학교) 심상민 (영남대학교)
박숙영 (세종대학교) 서상준 (전남대학교) 심재기 (서울대학교)
박숙자 (서울중앙초등학교) 서승옥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심진희 (매일경제)
박숙화 (가경초등학교) 서은아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안미애 (경북대학교)
박영중 (시온초등학교) 서지은 (한겨레중학교) 안상철 (오천고등학교)
박윤정 (윤디자인연구소) 선미옥 (천보중학교) 안영려 (고흥풍양중학교)
박은영 (송내고등학교) 성백인 (서울대학교) 안정배 (인천왕길초등학교)
박재역 (동아일보) 성지혜 (한국소설가협회) 안정호 (한양대학교)

일반 참가자 명단 (가나다 순) 총 432명

안주현 (경북대학교) 윤정옥 (한국소설가협회) 이승엽 (문학정보) 임지영 (군포옥천초등학교)
 안현진 (역락출판사) 윤정의 (경덕여자고등학교) 이승훈 (동아일보) 임형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양영하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은미희 이영발 (서울문영여자고등학교) 임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양지현 (경상대 국어문화원) 이진범 (한글문화연대) 이영숙 (한양대학교) 장미영 (전주대학교)
 오동춘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경미 (제주중앙중학교) 이영식 (시인협회) 장병학 (창녕목야고등학교)
 오명자 (약사초등학교) 이경우 (서울신문) 이영주 (풍문여고) 장영인 (매일경제)
 오미향 (서울영동초등학교) 이경자 (경안여자중학교) 이영희 (미래문화회) 장은석 (움직이는말글문화)
 오상현 (박문각) 이경직 (화가) 이유미 (한양대학교) 장은아 (서울대학교)
 오상현 (연세대학교) 이경진 (강원도청) 이윤실 (서울경제) 장은화 (한양대학교)
 오세영 (안양여자고등학교) 이계윤 (고암중학교) 이은영 (경상대학교) 장재화 (상서고등학교)
 오세영 (시인) 이금순 (청량초등학교) 이은자 (명원중학교) 장정화 (이화여자대학교)
 오임순 (소천중학교) 이기남 (훈민정음재단) 이의영 (한국한문초등교육회) 장지연 (성신여자대학교)
 오탁번 (시인협회) 이기만 (움직이는말글문화) 이재경 (경향신문) 장지현 (동부보호관찰소)
 오현아 (서울대학교) 이길재 (가계발전사업단) 이재우 (소천고등학교) 장충덕 (충북대학교)
 오현주 (천보중학교) 이남숙 (서울중산초등학교) 이재인 (단성중학교) 장혜진 (연세대학교)
 왕청청 (상명대학교) 이대로 (우리말살리기사업단) 이재철 (표고초등학교) 장화심 (중리중학교)
 우경숙 (서울당중초등학교) 이명신 (서울대길초등학교) 이정도 (제천한송초등학교) 전수태 (고려대학교)
 우제근 (한국어문교류기자협회) 이명자 (전남대학교 국어교육원) 이정섭 (한국소설가협회) 전영옥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우쾌제 (인천대학교) 이미향 (경북대학교 국어문화원) 이종호 (구로고등학교) 전용호 (한국어문언론인협회)
 우태영 (방위산업청) 이미혜 (이화여자대학교) 이진은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전재호 (경북대학교)
 유목상 (중앙대학교) 이상보 (한글재단) 이진주 (경희대학교) 전중영 (이화여자대학교)
 유영곤 (하의중학교) 이상현 (교육과학기술부) 이찬규 (중앙대학교) 전지연 (한국어문회)
 유이분 (꿈틀학교) 이상희 (국어문화운동본부) 이재영 (은광여자중학교) 전혜숙 (한국경제)
 유재기 (한중문화포럼) 이석중 (개금고등학교) 이춘림 (서울중산초등학교) 정광 (고려대)
 유재연 (백산고등학교) 이선영 (전남대학교 국어교육원) 이하나 (강북중학교) 정광자 (서울대영초등학교)
 유지연 (문화일보) 이소연 (광운대학교) 이행섭 (지족고등학교) 정국 (한국외국어대학교)
 육효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소정 (경희대학교) 이현국 (한양대학교) 정길연 (소설가)
 윤수란 (신연중학교) 이수라 (전주대학교) 이혜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미 (가계발전사업단)
 윤수영 (이화여자대학교) 이수빈 (상명대학교) 이화용 (전일중학교) 정병규 (V I D A K)
 윤영숙 (서울창천초등학교) 이수자 (중앙대 민속학과) 이회환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정병남 (세일고등학교)
 윤영숙 (시인협회) 이수현 (움직이는말글문화) 임근영 (인천부평초등학교) 정병호 (출판인)
 윤원일 (소설가) 이숙 (국민대학교) 임보선 (가계발전사업단) 정복수 (한국어문언론인협회)
 윤인희 (건국대학교) 이슬비 (서울대학교) 임상희 (풍동중학교) 정석호 (송림초등학교)
 윤재룡 (소설가) 이승률 (연변과학기술대학교) 임수진 (대전삼천초등학교) 정선희 (송림초등학교)
 윤재웅 (법제처) 이승연 (움직이는말글문화) 임정아 (서연중학교) 정성미 (한국외국어대학교)
 윤정아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이승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임지아 (동아대학교)

정연희 (한국소설가협회) 최윤 (강원대학교) 정은경 (발산중학교) 최은진 (동아대학교)
 정은미 (고흥과역중학교) 최정순 (배재대학교) 정재분 (시인협회) 최주열 (신문대학교)
 정재훈 (영운중학교) 최주원 (광명북고등학교) 정종길 (시조협회) 최하나 (금남고등학교)
 정종삼 (대전서일여자고등학교) 최하진 (전남중학교) 정진이 (대전유천초등학교) 최해경 (울산중앙여자고등학교)
 정한숙 (포천중학교) 최홍열 (강원대학교) 정현기 (우리말로학문하기) 최희범 (포항장성고등학교)
 정혜란 (상명대학교) 탁진영 (경희대학교) 정효진 (정읍고등학교) 팜터권화 (서울대학교)
 조경선 하경화 (총의중학교) 조경숙 (국어문화원) 하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조미현 (선화여자중학교) 한광일 (성원고등학교) 조병희 (홍은중학교) 한금자 (한국중어문화총연합회)
 조선미 (태장중학교) 한송민 (부일중학교) 조용숙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영숙 (시인협회)
 조정희 (서울동일초등학교) 한용운 (가계발전사업단) 조창호 (소설가) 한윤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조하얀 (선화여자중학교) 한인숙 (국민일보) 조항범 (충북대학교) 한재준 (서울여자대학교)
 조희은 (학성중학교) 한홍기 (고산중학교) 주쌍희 (용문중학교) 허경행 (한국외국어대학교)
 주혜정 (연서중학교) 허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지현숙 (배재대학교) 허재영 (단국대학교)
 채윤미 (상명대학교) 허정환 (국토해양부) 최기호 (상명대학교) 허준구 (한국어문회)
 최낙복 (동아대학교) 홍윤기 (경희대학교) 최동성 (상산고등학교) 홍자영 (강원대학교)
 최동주 (영남대학교) 홍종명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 최선길 (광명고등학교) 황경수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최성배 (한국소설가협회) 황선영 (의왕초등학교) 최수연 (상명대학교) 황숙 (전주대학교)
 최연정 (예산중학교) 황인교 (연세대학교) 최영규 (시인협회) 황혜자 (원주고등학교)

